

양산시
마을이야기 책

: 상삼
다시 돌아오고픈 마을

양산시 마을이야기 책

: 상삼 다시 돌아오고픈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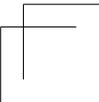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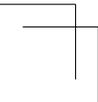
양산시
양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양산시 마을이야기 책 : 상삼

다시 돌아오고픈 마을

양 끝은 가늘고 중앙은 굵어 바다 위 배 모양을 닮았다.
배터마을이라 불리던 상삼의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되새겨본다.







(1964) 경남농촌자원지도자 제5기 수료기념



(연도미상) 학교 앞에서 찍은 주민들의 모습



(1969) 결혼식이 있던 날 어른들의 모습



(연도미상) 상북중학교 졸업사진



(1972) 집 앞에서



(1976) 윤전수방우 인근 가족과함께



(연도미상) 마을 주부대학 수료 기념



(2005) 상북농협 제1기 주부대학 수료 기념



(1987) 마늘농사짓는 모습



(연도미상) 평생학습 마을학교 수료식



(2018) 평생학습 마을학교 수료식

센터장 발간사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확산할 기회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김남룡(58)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현대문명의 뿌리는 농경사회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농촌사회의 역사와 전통문화는 우리 인류가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충분한 가치와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농촌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하여 우리 농촌마을 고유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생활상 등의 소중한 지역자원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촌사회가 서서히 소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입니다.

최근 우리 센터는 농촌지역의 어느 마을에서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원로인 어르신이 세상과 이별하면서 그 분만이 지니셨던 아이덴티티 등 소중한 농촌문화들이 계승되지 못하고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다른 농촌마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지역 원로인 한사람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들이 감소하여 결국 농촌사회가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사라져 가는 농촌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할 뿐만 아니라, 기존 문헌에 수록되지 않은 마을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기 위한 기록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양산시 농촌지역

마을들이 지닌 유·무형 자원들을 모아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양산시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마을의 체계적, 지속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는 지역 농촌 마을 주민들의 삶 속 이야기와 잊혀가는 농촌 마을의 옛이야기를 기록화하는 책자를 지속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양산시 농촌 마을이 지닌 고유의 문화, 복지, 경관, 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발굴하고 재정립함으로써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지역민에게 공유하고 확산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양산시 마을 아카이빙 북 발간이 우리 양산시 농촌지역 마을발전에 주춧돌이 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지역문화 자산이 되기를 기대해 보며, 아울러 이러한 전통적인 농촌문화들이 대대손손 잘 계승되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발간에 힘써 주신 양산시 균형개발과와 상북면 상삼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센터 연구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양산시와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우리의 농촌사회가 지속가능하고 참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양산시 농촌 활성화와 마을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삼마을 이장 인사말

협동하며 미래를 그려가는 상삼마을

상삼마을 이장
김시환(70)



많은 농촌처럼 우리 상삼마을도 마을에 내려오는 정서와 문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젊은 층이 없어 이 모든 게 끊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을에는 젊은 층에 속하는 60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추후 이장직을 비롯한 마을 일을 하며 상삼마을을 지킬 수 있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 상삼마을은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에 부치고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아, 농사가 아닌 삶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닿는 한, 다양한 것에 도전하고,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을에 내려오는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주민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마을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함께 나누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권역사업으로 생긴 '이팝문화센터'입니다. 현대화된 마을회관, 동아리방, 헬스장 등이 있어 다양한 문화생활을 5분 거리 내에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농촌 마을은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렵다'는 말은 상삼마을과 어울리지 않게 됐습니다. 주민분들이 큰맘 먹고 부지를 제공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신 결과였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신 주민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팝문화센터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주민분들도 뿌듯한 상삼마을의 자랑입니다. 제가 나고 자란 마을, 상삼리는 어머니 품속 같은

고향입니다. 또한 상삼마을은 막연히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닌, '생동감 넘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마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일을 맡으면서 주민들께 약속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동네 있는 동안은 첫째도 둘째도 협동하면서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갑시다." 이 인사말에 책임을 다하고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훗날 주민분들께서 저를 기억할 때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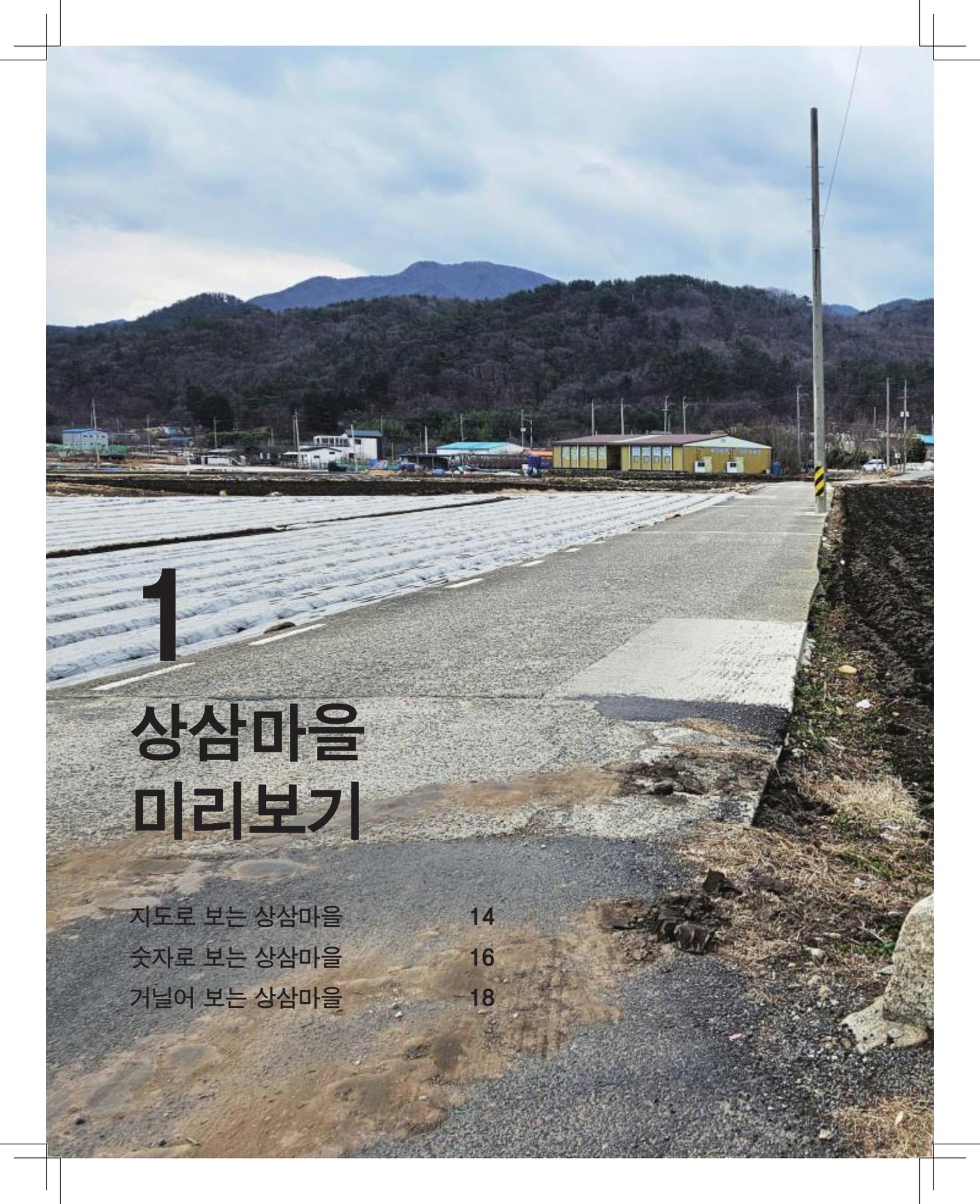
| | | | |
|----------|------------------------|--------------|----|
| 1 | 상삼마을 미리보기 | 지도로 보는 상삼마을 | 14 |
| | | 숫자로 보는 상삼마을 | 16 |
| | | 거닐어 보는 상삼마을 | 18 |
| 2 | 마을, 역사 한 바퀴 | 상삼리 유적 | 38 |
| | | 황산역 | 44 |
| | | 황산선정 | 48 |
| | | 칠원 윤씨 생가 상량재 | 50 |
| | | 꿈배기행사 | 52 |
| | | 당산나무 | 53 |

3 상삼마을의 인물

| | |
|--------------|----|
| 일제강점기와 양산 | 56 |
| 조선시대 만석꾼 이야기 | 58 |
| 상삼마을과 학교 | 70 |
| 항일의병장 서병희 | 74 |
| 독립운동가 김철수 | 76 |
| 윤인수, 윤정식 부자 | 78 |

4 함께한 일상을 기록으로

| | |
|------------|-----|
| 수서권역 사업 | 86 |
| 상삼마을 이장 | 92 |
| 수서권역 협동조합 | 96 |
| 이팝문화센터의 하루 | 100 |
| 원모어카페 | 106 |
| 우리의 삶 나누기 | 110 |
| 전하고 싶은 말 | 124 |



1

상삼마을 미리보기

| | |
|-------------|----|
| 지도로 보는 상삼마을 | 14 |
| 숫자로 보는 상삼마을 | 16 |
| 거닐어 보는 상삼마을 | 18 |

상
삼
마
을

아저오십시오



지도로 보는 상삼마을



- | | | |
|--------------|--------------|-----------|
| ① 이팝문화센터 | ⑤ 김재복 만석꾼 생가 | ⑨ 원모어카페 |
| ② 양산희망학교 | ⑥ 당산나무 | ⑩ 이팝나무길 |
| ③ 황산선정 | ⑦ 상삼못 | ⑪ 서병희 생가터 |
| ④ 윤인수 선생 생가터 | ⑧ 상삼유적지 | ⑫ 양산정수장 |



5

1

6

2

4

8

7

9

11

이팝문화센터

양산희망학교

oneMore

수서로

내석천

삼계교

경주방향

양산천

숫자로 보는 상삼마을

인구 현황

상삼마을 인구수

2012년 **404**명

2022년 **286**명

세대수

2012년 **164**가구

2022년 **157**가구

거리 및 소요시간

부산시 **33.6**km 59분 거리

밀양시 **61.6**km 53분 거리

울산시 **40.5**km 54분 거리

양산시청 **7.8**km 11분 거리

상북면사무소 **1.3**km 4분 거리

하북면사무소 **9.1**km 14분 거리

시설 현황

환경시설

1개



양산정수장

복지시설

1개



이팝문화센터
(시니어체육공간,
도담도담 북카페 등)

교육시설

1개



양산
희망학교

체육시설

1개



골프장

기타시설

1개



천주교
공원묘원

지명 유래

685년 신라시대 상북면은 삼량주의 일부에 속한 지역임

1413년 태종(13)부터 향 또는 방으로 칭해져 오다 조선 말기에 면으로 개칭

1887년 상삼리는 조선시대에 하북방에 속하였으나 중북면에 속하게 됨

1896년 양산군은 경상남도에 속하고 상북면은 양산군에 속하게 됨

1914년 중북면이 상북면에 병합되어 상산리라 하였지만 상삼리로 개칭

마을 현황

마을조직

개발 위원회 **8명**
지원사업 운영·추진 등
마을 현안사항 논의

부녀회 **30명**
마을봉사활동 및
불우이웃 돕기활동

노인회 **40명**
노인복지증진 및
정보교류

청년회 **20명**
경로잔치, 마을행사 등의
결정 및 지원

토지 이용 현황

| | |
|----------|------------------|
| 양산시의 면적 | 48,541 ha |
| 상북면의 면적 | 6,874 ha |
| 상북면의 비율 | 14.16 % |
| 상삼마을의 면적 | 369 ha |
| 상삼마을의 비율 | 5.36 % |

마을 진행 사업

상삼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경관생태)사업

사업 기간 **2015년 ~ 2016년**

사업비 **5억**

위치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일원

내용 **[H/W]** 공동주방 조성
마을안길 정비
항산선정 정비

수서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권역종합)사업

사업 기간 **2018년 ~ 2022년**

위치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좌삼리 일원

내용 **[H/W]** 이팝문화센터 조성
시니어체육공간
이팝다목적공간
이팝나무길

거닐어 보는 상삼마을

상삼마을 명칭

상삼마을은 앞으로 양산천이 흐르고 평원 주위에 잡목이 무성하여 상삼(上森)이라 불리며, 다르게는 '배터'라 전해져 오고 있다.

상삼마을 번성

상삼마을은 조선시대 물금리 지역에 있었던 황산역이 낙동강의 범람으로 상삼마을로 잠시 옮겨졌다고 한다. 장소는 알 수 없지만 황산역 있었다고 전해지며 이로 인해 술집이 늘어나 주막거리라고도 불리었다고 한다.

상삼마을 전설

배터마을의 명칭은 두 가지 유래가 전해진다. 마을 양쪽으로 양산천이 굽어 감고 뒤쪽에는 큰 도랑이 흘러 마을 모양이 양 끝은 가늘고 중앙은 굽어 바다 위의 배 모양과 같다 하여 배터마을이라 하였다. 또 다른 유래는 마을 안에 우물을 파면 배가 파선되어 마을이 망한다는 전설에 따라 마을 안에 우물 파는 것을 금해오고 있는 것을 보아 풍수지리적 요인에 의해서 배터마을로 불려왔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하늘공원

이팝문화센터

양산희망학교

배터

다양한 지명유래

상삼마을은 1857년~1895년까지 황산역으로 이용되면서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지역이었다. 2009년 발간된 상북면지의 상삼마을에는 49개의 지명유래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14가지의 예부터 역의 발달과 함께 인산인해를 이뤘던 성격(고개, 골, 내, 논, 들, 등, 마을, 못, 바위, 만큼 마을에는 다양한 지명이 존재하고 있다. 보, 늪, 우물, 웅덩이, 터)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구분 | 지명 | 지명유래 | 분류 |
|----|------|------------------------------|----|
| 1 | 문고개 | 상삼마을에서 소석리로 넘어가는 고개 | 고개 |
| 2 | 논골 | 숲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논이 있음 | 골 |
| 3 | 가장골 | 상삼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 4 | 가장골 | 논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이 곳에 假裝을 했다 함 | |
| 5 | 면사무골 | 웅동소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 6 | 숲골 | 상삼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숲이 많음 | |
| 7 | 뽕당골 | 상삼리와 좌삼리에 걸쳐 있는 골짜기 | |
| 8 | 간치거랑 | 동현터 뒤쪽에 있는 내 | 내 |
| 9 | 관청거랑 | 간치거랑 | |
| 10 | 멍에배미 | 동현띠에 있는 논. 지형이 멍에처럼 생겼다 함 | 논 |
| 11 | 왕새미 | 왕새미 근처에 있는 논으로 황새미라고 불림 | |
| 12 | 바풀사리 | 상삼마을 서북쪽에 있는 논 | |
| 13 | 필기사리 | 상삼마을 동남쪽에 있는 논 | 마을 |
| 14 | 흥문거리 | 상삼마을 한 가운데 있는 마을. 흥살문이 있었음 | |
| 15 | 황산 | 황산역 터가 있는 마을 | |
| 16 | 삼리 | 상삼마을 남쪽에 있는 마을 | |
| 17 | 상리 | 상삼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 | |
| 18 | 웃황산 | 황산 위에 있는 마을 | 못 |
| 19 | 하리 | 상삼마을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 | |
| 20 | 상삼못 | 상삼마을에 있는 못 | |
| 21 | 말랑들 | 상리 서쪽 둔덕에 있는 들 | 들 |
| 22 | 말밤새 | 상리 서북쪽에 있는 들 | |
| 23 | 굽들 | 상리 북쪽 구렁에 있는 들 | |
| 24 | 고래들 | 상리 서남쪽에 있는 들로 고래배알들이라고도 함 | |

| 구분 | 지명 | 지명유래 | 분류 |
|----|--------|---|---------------|
| 25 | 돌빼기 | 상삼마을 서쪽에 있는 돌. 바위 속 돌이 박혀 있음 | 들 |
| 26 | 동헌 | 상삼마을 서쪽에 있는 돌. 동헌터 뒤가 됨 | |
| 27 | 웃새들 | 새들 위쪽에 있는 돌 | |
| 28 | 새들 | 새미들 동쪽에 있는 돌 | |
| 29 | 새미들 | 상삼들 동쪽에 있는 돌 | |
| 30 | 섬시들 | 상삼마을 동남쪽에 있는 돌. 가운데에 흙무더기 셋이 섬처럼 있음 | |
| 31 | 아릿새들 | 새들 아래쪽에 있는 돌 | |
| 32 | 아리말랑들 | 말랑들 아래쪽에 있는 돌 | |
| 33 | 흥두깨등 | 상리 동북쪽에 있는 등성이. 지형이 흥두깨처럼 생겼다 함 | 등 (둔덕의 방언) |
| 34 | 깨구리방우 | 상삼마을 동쪽 냇가의 바위. 깨구리처럼 생겼음 | 바위 |
| 35 | 운전수방우 | 탕건방우 남쪽에 있는 바위. 그 모습이 운전수가 자동차에 앉아 있는 것 같음 | |
| 36 | 아시방우 | 가장골 위쪽에 있는 바위. 여우골이 있었음 | |
| 37 | 탕건방우 | 상삼마을 서쪽에 있는 바위. 탕건처럼 생겼음 | |
| 38 | 웃새들보 | 웃새들에 있는 보 | 보 (높) |
| 39 | 아릿새들보 | 아릿새들에 있는 보 | |
| 40 | 아리말랑보 | 아리말랑들에 있는 보 | |
| 41 | 새미들보 | 새미들에 있는 보 | |
| 42 | 서산 | 상삼마을 서쪽에 있는 보 | |
| 43 | 웅동소 | 상삼마을 남쪽 내에 있는 소 | 소 |
| 44 | 왕새미 | 고래들에 있는 샘. 마을에서는 황새미라고 불림 | 우물 |
| 45 | 깨구리방웅디 | 깨구리방우 옆에 있는 웅덩이 | 웅덩이 |
| 46 | 찬물웅디 | 상삼마을 동북쪽에 있는 웅덩이. 두 물이 합수되는 곳으로 찬물이 솟아남 | |
| 47 | 개때결 | 상삼마을 동쪽에 있는 터. 마을에서는 개따결이라 불림 | 터 |
| 48 | 동헌터 | 상삼리 439번지의 4에 있는 동헌 터. 조선시대 때 물금읍 물금리에 있었던 황산역이 낙동강의 범람으로 이곳으로 옮겨졌을 때 역의 찰방이 사용하였다 함 | |
| 49 | 황산역터 | 상삼마을에 있는 조선시대 황산역 터 | |

지명별 위치

주민들과 소통하고 면지를 통해 알아본 결과, 49개의 지명 중 25개 지명의 위치를 알 수 있었다. 각 지명별 위치는 그림과 같다.



- | | |
|-----------|----------|
| ① 문고개 | ⑭ 새들 |
| ② 뿔당골 | ⑮ 새미들 |
| ③ 논골 | ⑯ 섬시들 |
| ④ 먼사무골 | ⑰ 아랫새들 |
| ⑤ 흥문거리 | ⑱ 아리말랑들 |
| ⑥ 개때걸 | ⑲ 상상못 |
| ⑦ 동현터 | ⑳ 개구리방우 |
| ⑧ 황새미(논) | ㉑ 운전수방우 |
| ⑨ 말랑등 | ㉒ 탕건방우 |
| ⑩ 말밤새 | ㉓ 황새미 |
| ⑪ 굽들 | ㉔ 개구리방웅디 |
| ⑫ 고래(배알)들 | ㉕ 찬뭇웅디 |
| ⑬ 옷새들 | |





양산희망학교

이팝문화센터

황산선정

11

10

9

19

18

13

12

7

15

14

3

23

8

5

17

24

20

25

6

4

22

16

21

문고개

문고개는 소석리로 넘어가는 고개길이다.

문고개에서 바라본 소석리



문고개에서 바라본 하늘공원



뽕당골과 상삼못

상삼마을에서 하늘공원을 가는길을 뽕당골이라 한다.
뽕당골의 시작은 상삼못부터 시작된다.

뽕당골로 연결되는 하늘공원



상삼못에서 바라본 마을



뽕당골과 상삼못



거닐어 보는 상삼마을 25

뽕당골 호랑이 전설

뽕당골은 상삼리와 좌삼리에 걸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상삼마을 뒤 산 넘어 보이는 언덕 쪽인데, 상삼못에서 문고개가는 골짜기로 추정된다. 현재는 도로가 생겨 옛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전해져오는 이야기로는 뽕당골에는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있었다.

뽕당골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



김병동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사람이 안오니 온 마을 사람들이 찾으러 징을 치고 올라갔다. 발견해보니 호랑이에 물려 혼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대대로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다.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논에 물대러 남편과 같이 갔는데 신혼시절 남편이 부끄럽다고 뒤따라 오라고 해서 뒤에 떨어져 갔다. 남편이 앞에서 담뱃불을 붙였더니 범불이 도망가는걸 봤다고 한다. 범은 불을 보면 도망가는데, 아마 진짜 호랑이가 아니라 살쥍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남편이 “논에 범있대이.”라고 하던 말이 농담인줄 알았는데 진짜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럴 때가 불과 50년 전이다.

또 옛날에는 시집와서 눈이 많이 온 날에 서당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 범의 자족을 본 적이있다. 집 마당에도 있는걸 보니 진짜 범이 있기는 한가보다 생각하지만, 그 큰 호랑이가 마을까지 내려왔을 것 같지는 않고 다들 살쥍이라 생각하고 있다.

뿔당골에는 상을 치를 때 쓰는 상틀을 보관하는 곳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기운이 있는 것인지, 주민들도 무언가 모르게 소름돋는 기분을 느낀다고 한다.

“호랑이는 원래 자기의 구역이 있어 산에서 내려오지는 않는다. 다들 아마 살쥍이일 것이라 추측한다.”

아무리 가물어도 줄어들지 않는 샘, 왕새미(황새미)

과거, 마을에는 샘이 세 군데 있었다. 아래각단샘과 동쪽샘, 황새미. 그리고 황새미 맞은 편에 이름없던 작은 샘이 두 군데가 더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고 황새미만 남아있다. 주민들은 터를 보존해놓은 것이 없어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

샘은 밥도 해먹고 빨래, 목욕도 하고 생활을 같이 하던 공동 우물이다. 평균 15도 지하수라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라 목욕하기도 충분히 좋았다.

왕새미(황새미)



상삼리 439번지 4에 있는 동헌터

출처 | 황산역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439-4번지에 있는 동헌터는 조선시대 물금리 지역에 있었던 황산역이 낙동강의 범람으로 상삼마을로 옮겨졌을 때 황산역의 찰방이 사용하였다고 전해지는 터이다.

황산역지(조선1895년)



동헌터 전경



거닐어 보는 상삼마을 29

논골과 먼사무골

논과 논사이의 논골을 지나 먼사무골이 나온다.
지금은 먼사무골 끝자락에 양산정수장이 자리 하고 있다.

논과 논사이 논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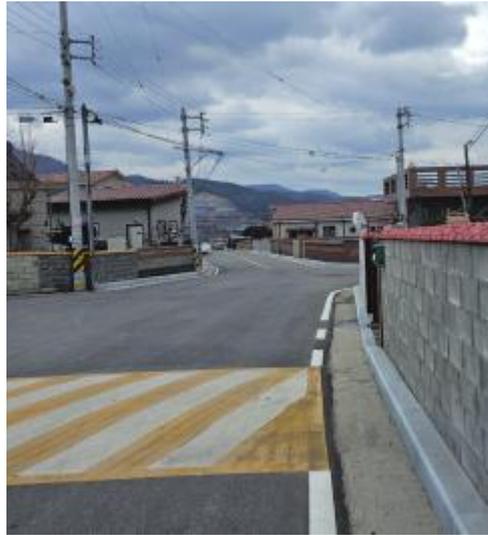
먼사무골에서 바라본 상삼마을



홍문거리

2차선 도로로 잘 정비된 마을안길은 과거 홍문거리라 불리었다.
홍문거리에는 홍살문이 있었다고 전해져 오고있다.

홍살문이 있었다고 추측하는 홍문사거리



홍문거리 중심 사거리



어릴적 물장구를 치며 놀던 개구리방구와 개구리방웅디

현재 삼계교에서 양산 방향으로 양산천을 내려다보면 작은 물레방아가 방치되어 있다. 지금은 잡초에 가려 다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 이곳은 실제로 물이 흐르며 물과 가까워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거나 뛰어다니며 놀던 곳이었다. 그때는 물줄기가 세고 위험한 곳이지만 위험한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다고 한다.

물레방아 근처에는 개구리를 닮아 개구리방구라 부르던 바위가 하나 있었다. 그곳에서는 낮에는 남자들이 씻고 밤에는 여자들이 와서 목욕하며 노래도 부르는 곳이었다. 짓궂은 개구쟁이들은 손전등을 들고 여자들이 목욕하는 곳으로 가서 불을 비춰보며 엿보고 놀다가 누나들한테 들켜서 혼난 적도 있다고 한다.

개구리방구 옆 물레방아



개구리방구와 개구리방웅디



운전수를 닮은 운전수방우

어르신들이 어릴적 하천에서 놀때 수위가 낮아 바위의 전체 모습을 보고 운전수가 운전하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운전수 방우라고 불렀다. 지금은 보가 생겨 수위가 높아져 바위의 윗 모습만 볼 수 있다.

운전수방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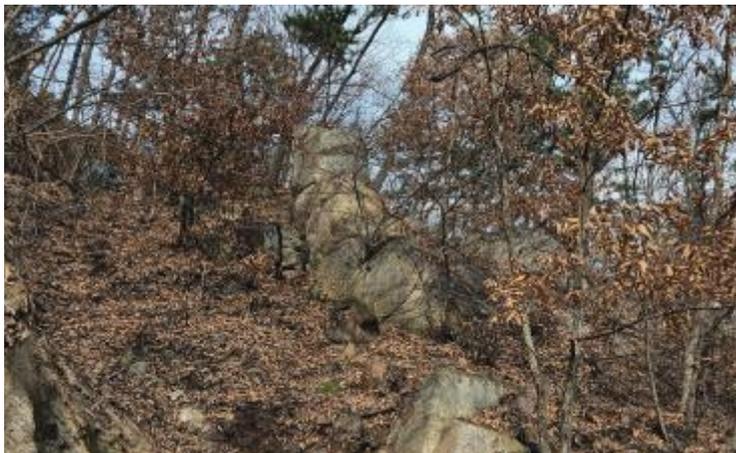


탕건모양을 닮은 탕건방우

어르신들의 어릴 적 놀이터이다. 겁없는 아이들 시절 신나게 바위를 타고 뛰어내리며 놀던 추억의 장소이다.

탕건방우

탕건



여름만 되면 솟아나는 찬물 웅덩이

상삼마을 동북쪽에는 찬물웅덩이가 있었다. 두 물이 합수되는 길목에 위치해 마르지않고 찬물이 솟아나는 자그마한 웅덩이였다.

찬물 웅덩이의 신기한 점은 겨울에는 물이 솟아나지 않지만 여름만 되면 찬물이 솟아나 물이 흐르는 것이었다. 흙으로 매립되어 있는 현재도 여름만 되면 물이 솟아나는 흔적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찬물 웅덩이 자리



상삼마을 동쪽에 있는 터 개때곶-터

마을 입구 상삼마을 표지석이 있는 자리를 개때곶이라 부른다. 면지에는 개때곶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개따곶이라 부른다. 지금도 개따곶에서 모이자고 하면 표지석에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인다.

개때곶터 전경



거닐어 보는 상삼마을 35





2

마을, 역사 한 바퀴

| | |
|--------------|----|
| 상삼리 유적 | 38 |
| 황산역 | 44 |
| 황산선정 | 48 |
| 칠원 윤씨 생가 상량재 | 50 |
| 꿈배기행사 | 52 |
| 당산나무 | 53 |

역사의 깊이를 느끼다 상삼리 유적

출처 | 양산시립박물관



상삼마을의 유래

상삼마을이 속한 상북면은 신라 신문왕 5년(685) 전국의 행정구역을 9주 5소경으로 개편하여 삼량주의 일부였다고 전해진다. 기록된 문헌은 없으나 상북면 청사는 원래 소토리 어전(현 내전마을)에, 중북면 청사는 상삼리 일부인 황산(현 상삼)에 있었던 것으로



뚜껑·굽다리접시, 굽다리잔

알려진다. 1914년 행정개편 때는 중북면이 상북면에 합병되었고, 이에 상북면 청사는 구 청사가 위치한 석계리로 옮겨졌다. 이때 단행된 행정구역 개편 당시 인근 신전리에 속하고 있던 상리를 흡수하여 상산을 상삼이라 개칭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물금면 물금리에 있었던

황산역이 낙동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되자, 역터가 상삼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이곳에는 동헌터 및 마패가 발견되기 했다. 또한 황산역 터를 알리는 표지석이 서 있기도 하다.

‘땅속에서 찾은 양산’

2019년 12월 10일 양산시립박물관 발굴유물 특별기획전을 통해 발간된 ‘땅속에서 찾은 양산’ 책 내용 속 상삼마을에서 발굴된 유적만 살펴보아도 역사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상삼마을의 북서쪽에 위치한 상삼리 590-1번지에서는 삼국시대 목곽묘 1기와 석곽묘 9기가 조사되었다. 유적은 5세기 초에서 6세기 중엽에 조성된 고분군으로 토기류, 철기류가 다수 출토되었으며, 고분구조와 출토 유물을 통해 그 당시 교류 양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곧은 입 항아리(삼국, 높이 25.6cm, 5호 석곽묘)



긴목항아리·바리모양그릇받침 (삼국, 높이 21.5cm, 4호 석곽묘)



상삼리 590-1번지 유적 위치



상삼리 590-5번지 유적

상삼리 590-5번지는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삼국시대 목곽묘 7기, 삼국시대 석곽묘 1기 등 총 9기가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적색마연토기, 단경호 등의 석기류와 철기류가 다수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2호 목곽묘



삼국시대 3·4호 목곽묘



590-5번지 전경



36호 석곽묘



상삼-좌삼유적

상삼-좌삼유적은 양산천에 합류하는 내석천의 하류에 해당한다. 낮은 구릉 사이의 곡부에서 발원한 소하천들이 합류하여 내석천에 유입되는 상삼천의 동쪽과 서쪽에 연접하여 위치한다.

조선시대 수혈유구와 주혈 등이 확인되었고 1차 발굴 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수혈유구 20기, 소성 유구 2기, 주혈 등이 확인되었으며 2차 발굴 조사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8동, 삼국 시대의 석곽묘, 석실묘 34기 등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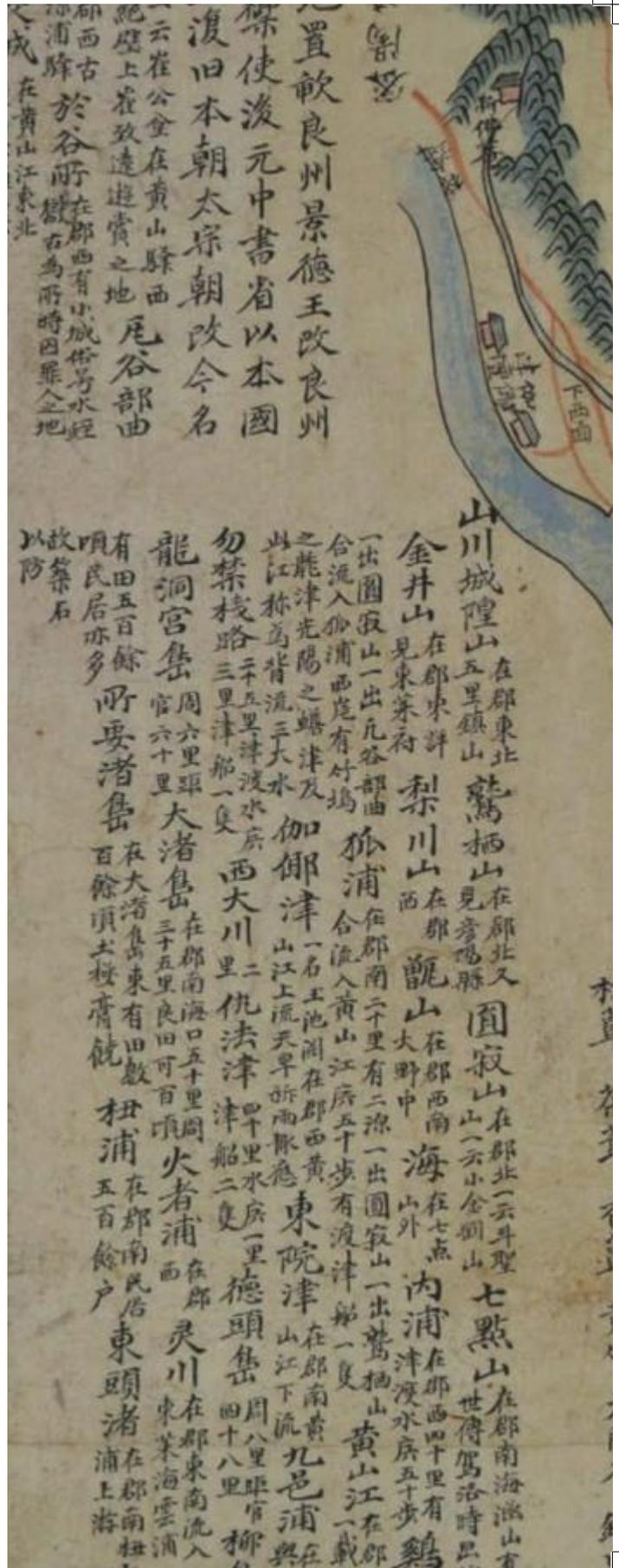
짧은목항아리
(삼국, 34호 석곽묘)



황산역, 그 역사를 찾아서

출처 | 양산시립박물관

고려시대부터 존재했던 황산역은 처음 양산시 물금읍 서부마을에 위치하고 있었다. 물금에 있던 황산역이 상삼마을로 옮겨오게 되는데, 홍수로 인해 더 이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양산군 상북면 석계리에 있던 위천역과 서로 바꾸어 1857년부터 1895년까지 지금의 상삼리 일대로 옮겨졌다.



영남역지 중 황산역도

密陽界五十里 北距 彦陽界四十里 郡名歆良州 良州 梁州 宜春 順正



驛山黃

邑內面 北四 坊五里 梨

上東面 初竟五里 終竟十里 大

下東面 初竟十里 終竟二十里 上

左耳面 初竟十里 終竟五里 下

大上東面 初竟十里 終竟二十里

大下東面 初竟十里 終竟二十里

上西面 初竟十里 終竟二十里

下西面 初竟十里 終竟二十里

驛院黃山驛 三里在黃山 江山驛 八里

安井院 在郡東 院南

嶺院仇法嶺 四十里

佛宇道度寺 在驛馬鞍山 距驛 五十里有站

松潭書院 泉湧出 其餘不詳 祠廟 伽倻 津祠 此典公州 熊津 讀載中 此每歲 土產 鉄 出火 龍堂 在郡南 高麗 稱伽倻 津行 而本邑 致奈 松茸 茶茸 香茸 黃竹 天門冬 銀口

松茸 茶茸 香茸 黃竹 天門冬 銀口



황산역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440-5번지 담장 밑 장대석

역은 국가의 명령과 공문서 전달, 변방의 긴급한 군사 정보 및 사신 접대, 공공물자의 운송 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말을 대고 잠시 쉬어가기도 했다. 그 주변으로는 시장이나 주막 등의 상권이 자연스럽게 발달했다.

고려시대부터 존재했던 황산역은 처음에 물금읍 서부마을에 위치하고 있었다. 물금에 있던 황산역이 상삼마을로 옮겨오게 되는데,

홍수로 인해 더 이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양산군 상북면 석계리에 있던 위천역과 서로 바뀌 1857년부터 1895년까지 지금의 상삼리 일대로 옮겨졌다. 마을 앞 시장이 있는 것도 옛 황산역지의 시장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현재 상삼마을 일대에는 공장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역원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다량의 장대석들이 남아있어 아직도 역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상북으로 이전 후

황산역은 상북으로 이전한 후 1895년 역원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40년 간 자리를 잡아 역참 업무를 수행했다. 1871년 5개동의 청사 건물에서 1895년에는 11개동으로 6개동이 증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역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역의 업무 증가로 인해 역민들이 증가하고 집단적으로 역 근처에 거주하게 됨으로 인해 황산역 주변에 역촌을 형성하게 된다. 또 역 앞에는 물류가 유통되는 시장이 형성되었고, 1895년 황산역에는 역리 7,638명과 노비 1,176명 등 총 8,814명이 소속되었으며 큰 말 7마리, 중간 말 29마리, 짐 싣는 말 10마리 등 모두 46마리의 말이 배치된 것으로 보아 영남 최대 역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영남역지 중 황산역도



배가 있는 정자 황산선정

황산(黃山)이라는 말은 옛날 삼국시대에 양산의 물금지역 낙동강을 황산강이라고 부르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황산’이라는 지명을 양산에서는 많이 사용했는데, 황산선정도 같은 어원이다.

황산선정 입구





황산선정 전경

황산선정의 유래

삼국시대부터 장마로 인해 양산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물금쪽에서 소금 등을 배에 싣고 하북면 신평리까지 왕래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황산선정(黃山船亭)은 황산의 ‘배가 있는 정자’라는 뜻으로 황산선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돌무더기가 있었으며, 그곳에 배를 묶어놓고 선원들은 선정에 올라와서 쉬었다고 전해진다. 정자 옆 나무는 상삼마을의 당산나무로써 마을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

상삼마을은 물에 떠 있는 배 모양을 닮았다하여 배터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주민들은 마을이 배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우물을 파면 배가 침몰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각각 공동우물을 만들어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더이상 우물을 파는 것을 금지했다. 현재의 황산선정은 2015~2016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버려진 황산선정을 정비한 모습이다.

칠원 윤씨 생가 상량재

칠원 윤씨 생가 상량재, 양산시 상북면 총렬로 1015

출처 | 디지털양산문화대전





칠원 윤씨 생가 상량재

상량재기의 기록

칠원윤씨 대언공파(代言公派) 양산 소문중(小門中)이 임진왜란 전에 남하하여 양산 상삼 및 양동에 세거의 터를 잡았는데 26세조 윤승원(尹承元)을 모시는 재사이다. 「상량재기」는 1997년 5월 18일 38세손 윤정삼(尹政三)이 근찬한 것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신라 태종무열왕 때 태사로서 고명원로(顧命元老)에 이른 윤시영(尹始榮)을 시조로 삼았고,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27세조 윤옥(尹沃)은 무과중추부사(武科中樞府事)였으며, 윤발(尹潑)은 무과에 급제한 만호(萬戶)였다. 두 사람은 임진왜란시에 형제가 창의(倡義)한 공으로 『양산읍지』, 『양산향안』에 실렸다.

머슴들이 놀던 날 꼼배기행사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꼼배기행사_밀양 백중놀이

예부터 상삼마을은 양반들이 많이 살았다. 마지막 풀베기인 '망시'를 하고나면, 한여름이 온다. 지주들이 띄약벌 아래 일을 못시키니 양력 8월 15일 하루 머슴들을 놀며 회포를 풀게 해주었다. 고된 일을 해오던 머슴들이 지주들이 마련해준 술과 음식을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춤판, 뒷놀이 등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마을에서는 옛 풍습을 유지하기 위해 8월 15일 마을 회관에 모여 점심식사를 같이하고 있다. 식사 후에는 삽, 바가지 등의 농기구를 건반벌 대항 윷놀이가 시작된다. 이제는 머슴이 없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단합대회로 바뀌어 즐기고 있다. 최근 3년은 코로나로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재개할 전망이다.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

과거, 상삼마을에는 마을을 수호하는 당산 나무가 두 그루 있었다. 바로 이팝문화센터 앞을 굳건히 지키고 서 있는 나무와 황산 선정에 있는 나무였다.

하지만 황산선정 당산나무는 1970년대에 낙뢰를 맞으며 수명을 다하였고 현재는 센터 앞 당산나무만 남아있다. 지금 황산선정에서 볼 수 있는 큰 나무는 당산나무가 아니며, 1970년대 당산나무가 소실될 때에는 작은 나무였다.

이팝문화센터의 당산나무는 오래되었지만 크게 크지 않는 수종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당산나무와는 규모가 다르게 보인다. 어르신들이 말하기로는 예부터 센터 옆 당산나무의 규모는 현재와 비슷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음력 3월 3일이 되면 당산나무에서 1년 동안 마을의 평화를 위해 당산제를 지냈었다. 어느 마을에서나 그렇듯이 신성한 당산제는 아무나 참석할 수 없었다.



이팝문화센터 앞 당산나무

3

상삼마을의 인물

| | |
|--------------|----|
| 일제강점기와 양산 | 56 |
| 조선시대 만석꾼 이야기 | 58 |
| 상삼마을과 학교 | 70 |
| 항일의병장 서병희 | 74 |
| 독립운동가 김철수 | 76 |
| 윤인수, 윤정식 부자 | 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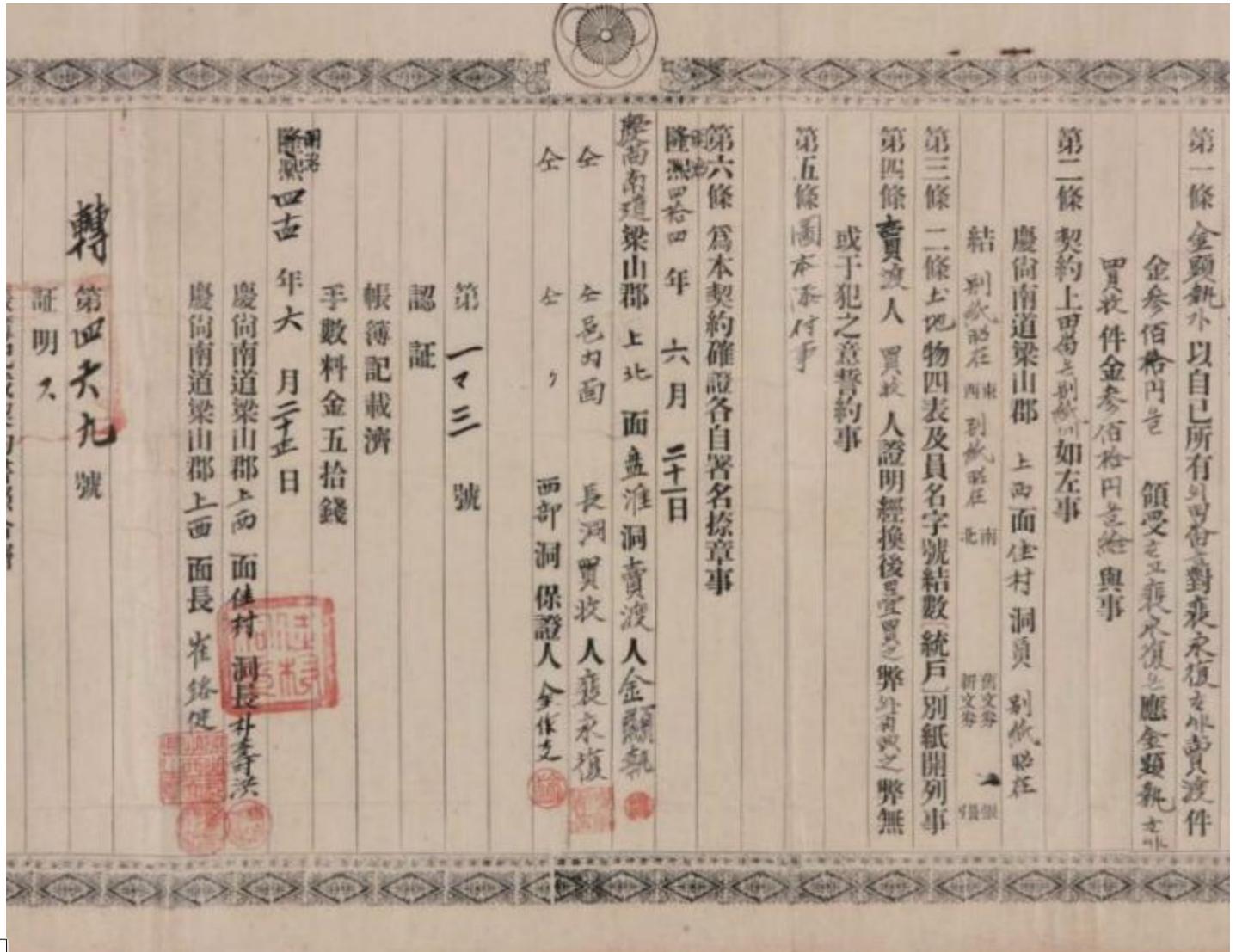


일제강점기와 양산

출처 | 양산시립박물관

일제는 1920년대 식민통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두 개의 사업을 실시했다.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고 행정적으로는 지방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양산군 상북면 토기계약서·도면





양산군 상북면 토기계약서·도면

1914년 지방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중북면은 상북면에 편입 해체되고, 하서면의 경우에는 밀양군의 일부 지역을 편입하였으며, 동면과 하서면, 하북면은 인근지역의 부산부 북부, 밀양군 하동면, 언양군 삼동면 일부를 각각 조금씩 편입하였다.

이때 개편된 양산군의 행정구역은 1926년경 행정구역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어 식민지 시기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제의

무단통치로 합법적 정치활동이 불가능해지자 각종 단체들은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결성하여 민족운동을 벌이기 시작한다.

상삼마을에서도 여러 의병활동을 도운 만석꾼 김재복 집안의 후손들에 이어 독립운동가 김철수 등 독립운동의 궤를 같이 한다. 더불어 상삼리 일대에서 독립운동가 정인석의 묘소가 발견되면서 일제강점기에 맞서 싸운 상삼마을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살아있는 역사책이 들려주는 조선시대 만석꾼 이야기

오경농장 회장 / 김종경(89)

출처 | 양산신문, 승정원일기, 월간순국

아홉살 머슴, 만석꾼 되다

조선 성종 때의 이야기이다. 철광석 광산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김재복(1824~1902)은 인근 상삼마을 한 방씨 집안에 젓머슴을 살러 갔다. 그 때 김재복의 나이는 아홉 살이었다. 옛날 상삼마을은 방씨의 집단촌이었다. 경제, 권력 등 모든 것을 방씨가 지배했다.

마을에는 보통 서당이 하나씩 있는데, 그 때 상삼에 있었던 서당에 다닌 사람들에게서 이것저것 주워 들으며 공부를 하더니 기존 학생들보다 더 잘했다고 한다. 김재복은 평소 매우 총명하고 성실했으며, 인물이 준수했다. 그래서 방씨 주인 아저씨가 김재복을 사위로 삼았다. 그는 주경야독 공부해서 무과급제 후 벼슬을 얻었다.



김재복 만석꾼 집터





오경농장 김중경 회장 / 김재복 선생을 가선대부에서 가의대부로 승차 제수한 광무황제의 칙명

(중략) 김재복, 김학리, 김지선, 이근수, 황수목을 오위장으로 ... (중략) ... 권응섭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로 삼았다.

[승정원일기 1884.07.13.]

이용관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로, 황헌주를 강화중군으로, 이택영을 평안중군으로, 김재복을 경상중군으로, 이덕준을 남춘 별장으로 삼았다.

[승정원일기 1884.08.08.]

그는 경상도 감영의 중군을 끝으로 귀향해 처가의 재력을 밑천으로 물금 철광산을 이용해 솥을 대량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솥장사가 대박이났고, 경상도에서 제일가는 소금장사로도 대박이 나서 요즘 말로 잘 나가는 재벌이 되었다. 이후 흉년이 들어 구제해야 하는 상황에 버 780섬을 마련하여 경상감영에 보태 ‘노블레스 오블리즈’를 실천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했다.

의병활동을 돕다

상삼마을은 만석꾼으로 알려진 김재복의 후손들이 살았던 마을이다. 그의 아들 김병희는 타고난 바탕이 뛰어나고 영리했으며 성품은 강직하면서도 분명했다고 전해진다.

좌삼마을 출신 의병장 서병희는 어릴 적 상삼마을 인근에 살았기 때문에 김병희가 후진을 양성할 때 배우러 다녔을 것이라 추측하는데, 그 때의 인연으로 김병희는 서병희가 의병장 활동을 할 때 의병모집을 적극적으로 돕고 군용금 5천엔을 지원해준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서병희 의병부대에 엄청난 힘이 되었다.

진중일지(김교상이 서경원에게 군자금 5000엔을 제공했다는 내용, 1908년)





김병희·김교상 부자

1908년 상삼마을에 거주하는 김상형, 김교상, 김교항(교환), 신성준 4명이 사립양정학교를 설립하면서 신문보도가 난다. 좌삼마을 출신인 서병희와 의병 일행이 1908년 6월 13일 양산군 하북면 성천마을의 여인숙에 숙박하던 일본인 고리대금업자들을 습격해 2명을 죽이고 조선인 통역을 처단했다. 서병희 의병을 추적하던 일본 수비대원들 15명이 김병희가 살고 있던 상삼마을 인근 야산에 변장을 하여 숨어있었다.

[진중일지]에 따르면 김병희, 김교상 부자는 일본 정규군과 교전을 무려 40여 분간 치열하게 벌이고 현장에서 14명을 사살한다. 진중일기에는 김병희가 "적괴 서경원(=서병희)과 기맥이 통하여 현재의 군용금 5천엔을 쫓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교상, 6품관에서 정3품으로 승진한 기사 (『황성신문』, 1907.04.23). 김병희·김교상 부자는 당상관에 해당하는 벼슬을 지낸 거부였다. 이들 부자는 높은 벼슬을 지내면서 치부한 것이 아니고, 돈으로써 벼슬을 산 것은 더욱 아니었다. 김병희는 생원시에 합격하여 동몽교관을 거쳐 통정대부(정3품)에 이르렀고, 아들 김교상은 6품 중추원 의관을 거쳐 '참위'에 이르렀다.

김교상이 6품관에서 정3품으로 승진한 황성신문 기사

월간 순국 [2020/07]경남 양산의 김병희·김교상 의병장' 기사 내용 중 『폭도에 관한 편책』의 내용 부분을 살펴보면 당시 김병희·김교상 부자 의병장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부산경찰서장 이다 아키라(飯田章)가 내부 경무국장 마쓰이 시게루(松井茂)에게 보고한 기밀문서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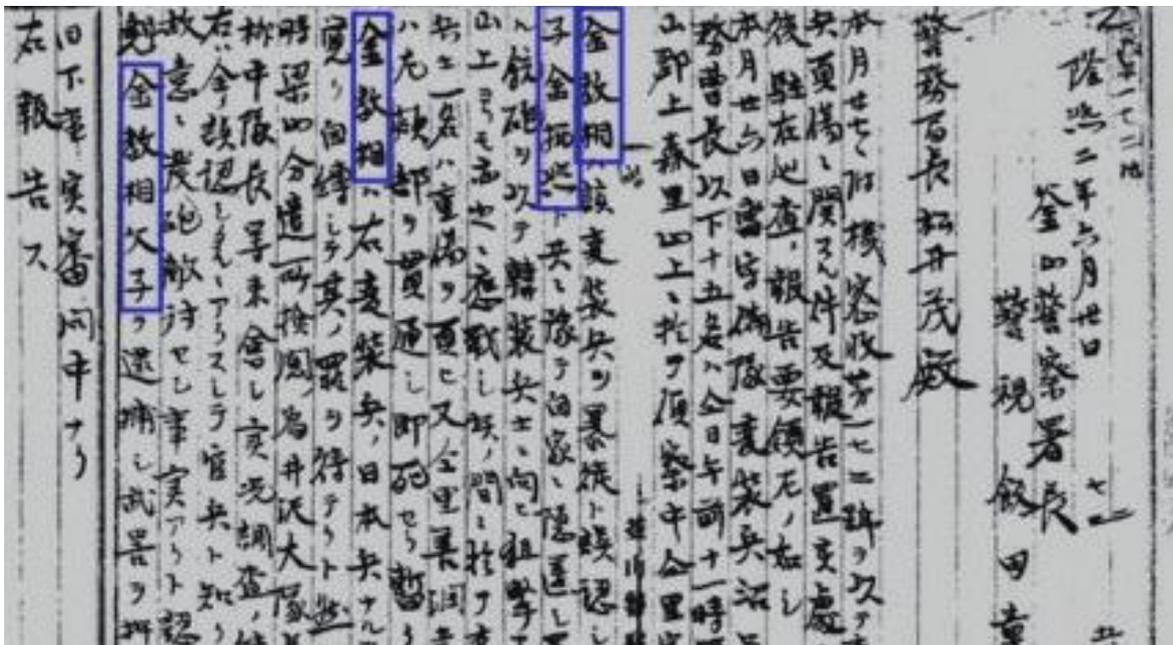
“본월 27일부 기밀수(機密收) 제172호로서 변장병(變裝兵) 부상에 관한 건을 보고한 바, 그 후 주재순사 보고요령은 좌와 같다.

본월 26일 당 수비대 변장병 누마구치(沼口) 특무조장이하 15명은 동일 오전 11시경 양산군 상삼리(上森里) 산 위에서 정찰 중, 동리(同里) 부호(富豪) 김교상(金敎相)은 그 변장병을 폭도(暴徒)로 오인하여 그 아들 김병희(金柄熙)와 함께 미리 자기 집에 은닉해 둔 총포로서 변장병사를 향하여 저격하였으며, 산 위에서 또한 이에 응전하여 그 사이에 변장병사 1명은 중상을 입고, 동리 강윤희(姜潤喜)(15세)는 왼쪽 턱 주위를 관통하여 즉사하였으며, 잠시 후

김교상(金敎相)은 우(右) 변장병이 일본병임을 깨닫고 자박(自縛)하여 그 죄를 인지했다.

당시 양산분견소의 검열을 위하여 이자와(井澤) 대대장, 코야나기(小柳) 중대장 등이 내회(來會)하여 실황조사를 한 결과, 우(右)의 김(金)이 오인(誤認)한 것이 아니고, 관병(官兵)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발포, 적대(敵對)한 사건이라고 인정하여 수괴(首魁) 김교상 부자를 체포하고, 무기를 압수하여 목하 사실 심문 중임. 우와 같이 보고함. (필자 역)”

폭도에 관한 편책(1908년 06월 30일)





양산시 동면 소재 산지마을 경주 김씨 재실에 설치돼 있는 김병희 의병장 묘비(19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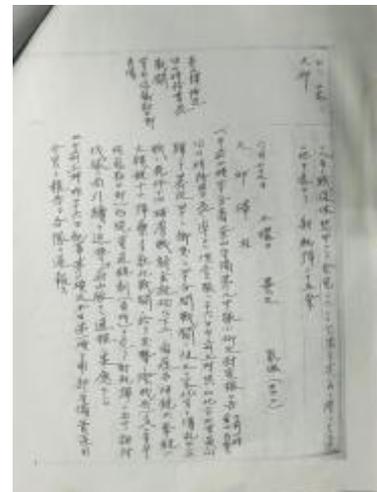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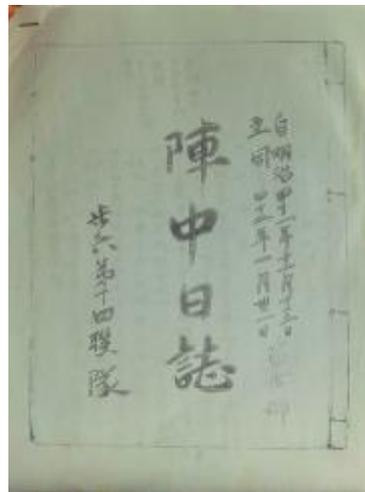
이 기밀문서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과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전자는 일본군 부산수비대가 변장대를 운용한 사실과 김병희·김교상 부자 의병장이 이끈 양산의병이 일본 변장대임을 알고 이에 맞서 싸웠다는 것이고, 후자는 일본군 부산수비대에서 변장대를 파견하여 기습한 것을 마치 의병이 선제공격한 것으로 꾸몄으며, 김병희·김교상 부자를 서로 바꿔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며칠 전 서병희 의진이 고리대금 업자 일본인을 처단한 것과 김병희·김교상 부자 의병장이 양성하던 의병 40여 명을 기습한 것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군 경주수비구 사령관 이자와 소좌와 부산수비대장 코야나기 대위가 헌병대인 양산분견소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김병희 부자의 의병은 서병희 의병부대가 양산을 탈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일본군과 교전을 한 김병희와 아들 김교상 부자는 결국 체포된다. 일본군은 두 의병장을 철사로 손바닥을 꿰뚫어 묶은 채로 끌고 다녔다. 갓은 고문을 한 뒤 하북면 소재지인 성천마을 앞 통도사 자비도량 근처의 소나무에 3일간 매달아 주민들이 보도록 하였다. 일본에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양산 각 시장에 끌려 다니며 고문을 당한 후 1908년 7월, 이틀 차이로 각각 총살 순국하게 된다.

일본군 14연대 [진중일지]



김병희의 둘째 아들 김교환은 기종원분시어와 중추원의관을 지냈다고 조선신사대동보에 기록되어 있다. 일본군에 의해 친부와 형이 죽임을 당한 1908년 이후에는 도피하듯이 부산으로 옮겨와 생활한 것으로 추측된다. 고향 양산 상북의 상삼마을과 부산 좌천동 양쪽을 오가며 기부와 육영활동을 하면서 살았다.

김교환은 기부행위로 인해 목배를 세 번 받았다. 1911년 5월 곡 20석을 기부하고 1912년 6월 양산공립보통학교 설비비를 10원 지원하여 그 일로 인해 총독부로부터 목배를 받았다. 이외에도 양산군 상북공립보통학교, 부산상업학교, 사립동래고등보통학교 등 여러 학교에도 기부를 많이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동래육영회의 기부 내용을 보면 부산과 양산지역의 유지는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3년 김교환은 김재복과 김영석 문집인 [경가고존]을 편집, 간행한다. 김교환이 쓴

발문에 따르면, 자신의 집안에는 조부의 저서 [둔재만록]과 부친의 저서 [산천유고]가 소장되어 있었는데, 김교환이 화를 당해 십수년동안 객지를 떠도는 사이 조부의 유고가 소실되었다. 아마 1908년 일본군과의 전투로 집안이 엉망인 상황에서 유고들이 많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육영사업에 대한 기부활동은 결국 학교 경영으로 연결되어 1925년 고향인 상북면 상삼마을에는 아들 김정표와 함께 농립강습소를 세워 운영하였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일가친척들은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했다. 살기 위해 부자의병장에 관한 문건은 모조리 없애야만 했다. 후손들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살아오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련된 유적을 발견한 후 기록을 찾으러 일본에 직접 고서적을 연구하러 갔다. 그렇게 직접 발견한 기록물이 ‘일본군 14연대 [진중일지]’이다. 선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상삼마을에서 14명이 사망했다는 사실도 이 진중일지를 통해 알게된 것이다.

| 참고자료 |

2021년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 자료집
일본군 14연대 [진중일지]
상북초등학교 백년사
양산신문

卯 月三十日

名ノ賊ト交戦シ其土名ヲ獲シ大銃銃ハ大藥彈丸雜品ヲ
 鹵獲ス我ニ損害ナシ 射銃彈二百四十五發
 二 釜山守備第九中隊ハ標大尉報告 於釜山 六月十九日
 一 昭口特務曹長ハ率ニ討伐隊ハ六月二十日黃山驛(梁山方)附近
 戰鬪後賊ヲ追躡シ翌三日龍淵店(黃山驛北方) 東北方山中
 一 森林内ヲ搜索中賊ハ陝匿セル尤記銃器ヲ発見押収セリ
 一 甲銃(軍銃)七挺 丙譯(タイガール)形ニ マルチニ一形ニ 其他一
 一 大銃銃 一挺 丙譯(タイガール)形ニ エンピル 三
 一 談賊糾ハ捕虜方中一名金教相ト稱ス兩班ニシテ附近教郡ニ在リ
 有教ノ地主ナルハ其勢力熾盛ニシテ數町前ニテ考陽梁山間ニ出
 没シ横暴ヲ逞フシハ凡賊糾除敬元ト氣概ヲ通シ現ニ軍
 用金トテ五千圓ヲ獲シ送リトカノ敬元ハ目下梁山西北方山間ニ隱
 遁シアル模様凡テ以テ當分ノ間全特務曹長以下七名ヲ此附近ニ
 置シ之ヲ搜索セシム

三 慶州守備區司令官井澤方佐報告要旨 六月二十日 於慶州

상삼마을과 학교

출처 | 양산 상북초등학교 백년사

근대의 대표적 상징물은 근대식 학교의 출현이다. 양산지역이었던 구포가 동래로 편입되면서 오늘날 구포초등학교의 전신인 구명학교가 들어서게 된다. 이에 영향을 받은 양산읍내에서도 근대학교에 대한 교육욕구가 높아졌다. 역사가 오래된 양산의 대표적 학교는 현재 양산 시내의 양산초등학교, 하북면 신평의 보광중학교를 들 수 있으며 상삼마을에서는 상북초등학교에서 그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상북초등학교





양산읍내교 제28회 졸업기념사진(1941년)

근대 사립학교의 경우 그 지역의 많은 유지들이 민족 운동의 차원에서 건립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해냈다. 양산공립보통학교의 전신은 1912년 설립된 양산사립보통학교로 양산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해당 학교를 졸업했다. 양산사립학교를 시작으로 1920년대에 양산군내에 현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세워졌다.

상삼마을에는 민족의식이 높은 사람이 많았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보아도 양산지역에서는 상북면 상삼리, 사서면 명언리, 상서면 화산리 출신들이 대거 참여했다. 더불어 상삼마을 김재복의 후손들은 사립양정학교를 세우고 부산상업학교(현 개성교) 등에 기부를 하는 등 일제강점기에도 학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사립양정학교 설립

1907년에는 상삼리 출신 김근희, 김교상, 김교항, 김교용, 김교성, 김교달, 김효준, 강진형 등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다. 이 중 김씨는 모두 경주 김씨로 상삼마을의 김재복의 후손들이다.

1908년 상삼마을에 거주하는 김상형, 김교상, 김교항(교환), 신성준 4명이 사립양정학교를 설립하고 열심히 찬조하여 학도가 40여 명에 달하고, 교육의 정도가 점차 진보함이 가깝고 먼 지역의 총명하고 준수한 학생들이 차례로 입교할 정도였다.

‘진중일지’에 따르면 교전을 한 의병 숫자가 4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양정학교의 숫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어떤 교육이 이뤄졌는지 미뤄 짐작하게 한다.

양산농림 강습소

1908년 김교상과 김교환이 사립양정학교를 설립 후 김교상과 부친 김병희는 의병활동을 하며 일본군에게 사형을 당했다. 그때 학교 설립을 다 이루지 못했던 김교환이 다시 1925년 양산농림강습소를 설립했다. 그는 김병희의 동생 영석이 아들이 없이 사망하여 그의 양자가 되었다. 양부인 김영석도 일찍 생원에 급제할 정도로 매우 뛰어났으며 효성과 우애가 있었고 책을 손에 놓지 않았다.

김교환은 조선 실업계의 부진을 근심하며 소학교 졸업생의 입학난을 구제할 취지로 상삼리의 자기 소유의 건물에 사립농공학교를 설립했다. 설립비와 농업실습지를 기부하고 그 유지비 또한 직접 부담했다.

(중략) 수원고등농림학교 조교사인 지영린씨를 청빙하여 3년제 중학 정도의 농림학과를 교수하는 동시에 실습을 주로 하되 일반의 모범과 장래의 개량을 목적하는 동시에 일반 농민의 실생활의 보조도 되게 하며 한편으로는 강습원 내부 충실에 극력하여 실습장을 보내었으며, 비료사와 교사 사택과 양잠 겸 교실용을 신축하여 지난 9일에 3년제 졸업생 11명을 내게하는 졸업식을 신축교사에서 성대히 거행하였다. (중략)

양산 농림강습소의 터가 있는 양산희망학교



양산이 낳은 유명한 항일의병장 서병희

출처 | 양산시립박물관

서병희(1867~1909) 선생은 경남 양산이 낳은 유명한 항일의병장으로 자는 경운 또는 경원이다. 고종이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자 상경해 항일의병활동을 전개하고, 영남으로 내려와 의병항전을 벌였다.

서병희 선생 생가터(양산 상북면 좌삼)





서병희 훈장 및 훈장증 현대(1990), 22.0X41.0cm

상삼마을 인근 양산 상북면 좌삼리에 출생하여 1881년까지 한의학을 수학하고, 1887년에 상경하여 한의학을 배워 양산에서 한의원을 경영하였다. 을사보호조약으로 국운이 기울어지는 모습에 한탄했던 서병희는 1907년 2월에 상경해 그해 10월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 활동하던 의병장 허위의 휘하에 들어갔다.

서병희는 1909년 3월 이학로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인 부대 편제를 갖추고, 5월에는 함안군 군북시장에서 일본인을 응징하고 일본군 수비대와 경찰서에 각성을 촉구하는 격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같은 해 6월에는 칠원 주재소를 습격하고, 군자금 800냥을 거두는 등 경상도 전역을 무대로 활약했다. 이 과정에서

서병희는 상삼마을 인근에 살았었기 때문에 상삼마을 김병희가 후진을 양성할 때 함께 배우러 다녔을 것이라 추측한다. 김병희는 서병희의 의병모집을 적극적으로 도와 군용금 5000엔을 지원하였고 덕분에 서병희 의병 부대에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한다.

경상남도 지역을纵横무진했던 서병희는 1909년 10월 11일에 체포되었고, 취조 과정에서도 끝까지 함구하여 향년 43세로 순국한다. 1990년 의병 활동을 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었으며, 양산시 상북면 수서로 159에 그의 생가가 있었으나 현재는 멸실되고 공터만 남아 있다.

일본에서 독립을 외친 독립운동가 김철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일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식민 지배를 당하던 나라들의 국민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심어주었다. 당시 도쿄에서 유학 중이던 우리나라 학생들은 1919년 2월 8일, 각국의 대사관과 일본의 언론, 조선총독부에 독립선언문을 보냄과 동시에 ‘조선청년독립단’을 결성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독립운동가 김철수



“조선청년독립단은
우리 이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만국의 앞에
독립됨을 선언하노라.”
[2·8 독립선언서 중]



2·8 독립선언을 주도한 일본 유학생들 (가운데 줄 좌측 세번째 김철수)

1896년 태어난 상삼마을 출신 김철수는 어린 시절 서병희와 김병희 의병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것이다. 대학교를 일본으로 가면서 ‘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에 가입하는 등 독립투쟁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는 2·8 학생독립운동 준비를 위한 11인 대표 위원으로 선출되어 조선독립 선언식을 주동하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지방재판소에서 금고 9월을 언도받고 동경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1920년에 출옥했다. 귀국후초대양산청년회의회장,조선청년총동맹 상임위원, 조선물산장려회 경리부원, 신간회

검사위원 등으로 민중계몽운동과 함께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또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양산과 언양의 청년 농민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자주독립선언을 하며 식민지 독립운동 선봉에 있던 김철수의 고향 상삼마을에는 그의 흔적이 없다. 그러나 만석꾼 김재복 일가의 집과 가까이 살았던 김철수를 상삼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위대한 독립운동가 김철수로 기억하고 있다.

양산의 선각자 윤인수, 윤정식 부자



윤인수 공덕비

상삼마을 총렬로에는 동네유지이자 동네를 위해 헌신한 윤인수 선생을 기리는 공덕비를 마주할 수 있다. 윤인수 선생은 양산 상북 상삼리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생기기 전에 마을을 위하여 AID(개발도상국의 경제적·정치적 안정을 기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며, 산업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미국의 정부기관) 지원금을 받아 당시 양산군에 농협을 창설했으며, 마을에 전기를 넣고, 향교를 다시 일으켜 세웠으며, 향교 부속중학교를 건립하여 후학을 양성한 지역의 선각자이다.

윤인수 선생이 타계하자 양산시는 면사무소 앞에 윤인수 선생을 기리는 공덕비를 세웠고 현재는 상삼마을 총렬로로 옮겨져 후세에 귀감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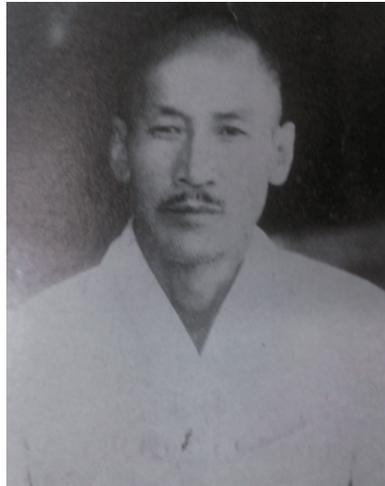
6·25 참전용사 학도병 윤정식

윤인수 선생의 아들 윤정식 선생의 6·25 참전에 대한 이야기는 2011년 6월 21일 양산시민신문에 실린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상처’라는 기사에서 만날 수 있다.

6·25 참전용사인 윤정식 선생은 1927년 3월 10일 양산군 상북면 상삼리에서 태어났다. 당시 집은 대농을 하며 양산에서 부유한 가정의 둘째 아들이었다. 일제강점기 말기 시절이었던 당시의 초등학교 격인 상북심상소학교(현 상북초등학교)와 양산농업전수학교를 졸업한 뒤 일제 말기 때 부산우편저금관리국에서 근무하다가 해방 이후 부산고등무선통신학교에 입학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부산 영도에 설립된 부산고등무선통신학교를 다니며 이때 무선통신사 면허증을 받았다. 이후 육군사관생도 모집에 합격하여 육군사관학교 10기로 입학, 육군통신학교 교육을 받고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윤인수



윤정식



“그냥 죽으라는 소리로 받아들였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전격적인 남침을 감행하면서 6·25전쟁이 발발했다. 순식간에 전선은 무너졌고,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은 아직 훈련도 마치지 못한 생도들마저 무기를 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우리군 지휘관이 생도들을 모아놓고 건물에 숨어 있다가 탱크가 15m 이내로 접근하면 탱크 시야에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폭탄을 안고 달려가 탱크 밑에 놓고 세 바퀴를 굴러 바닥에 엎드린 뒤 입을 벌리고 있으면 관촬을 거라고 하더군. 그런데 관촬을 리가 있나? 그냥 죽으라는 소리로 받아들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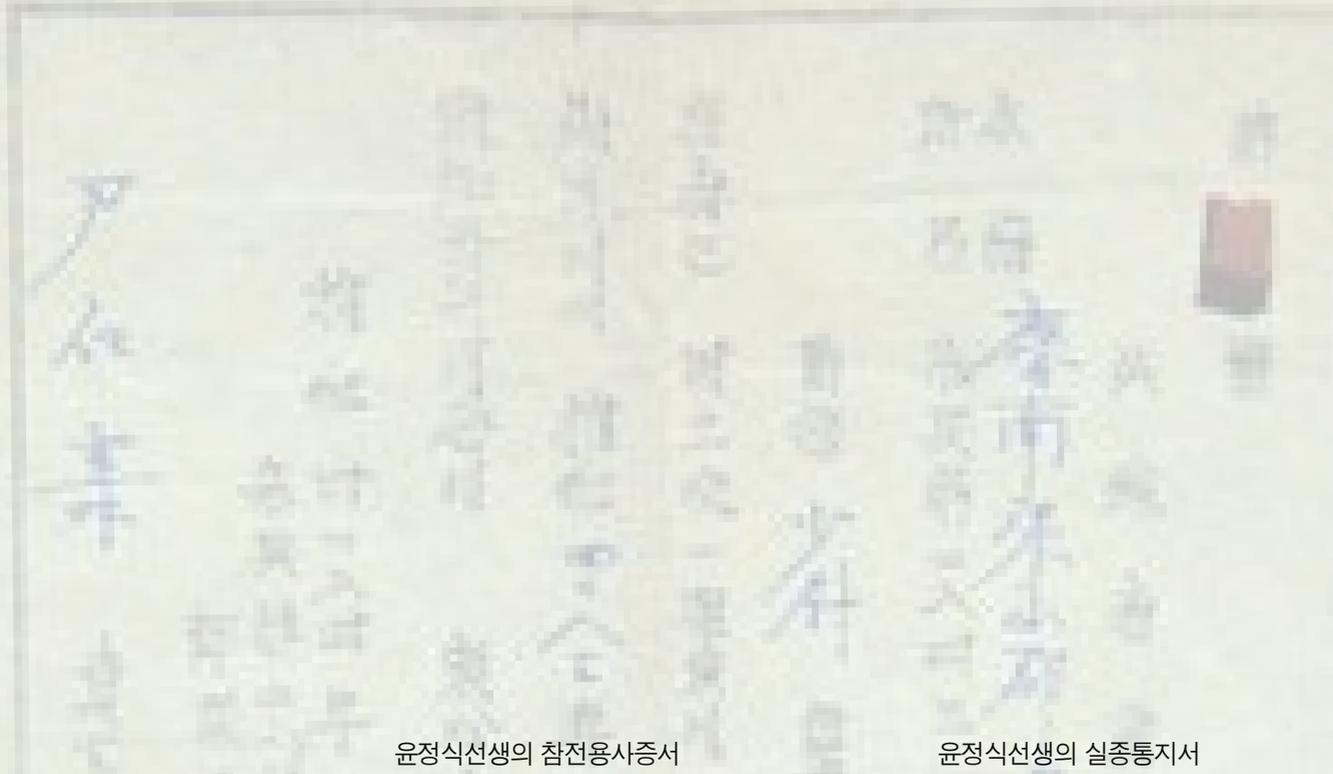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던 전세는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순식간에 역전됐다. 부대는 북진을 계속하여 별다른 큰 전투 없이 북한의 수도 평양을 관통하는 대동강에 다다랐다가 다시 평양 우측으로 진격, 개천까지 전진했다.

우리 부대는 용문산에서 중공군과 대치하며 열렬히 전투를 치렀다. 용문산을 넘어 덕천을 거쳐 묘향산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후방의

연대지휘부가 중공군의 기습을 받고 뒤늦게야 덕천으로 후퇴하라는 통신명령을 하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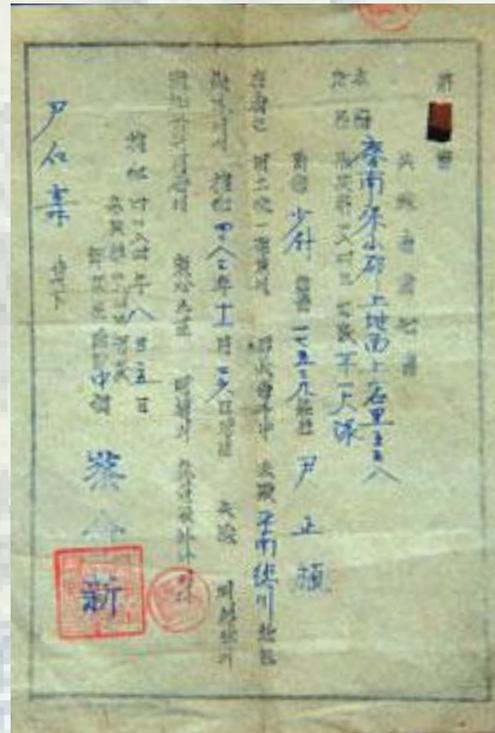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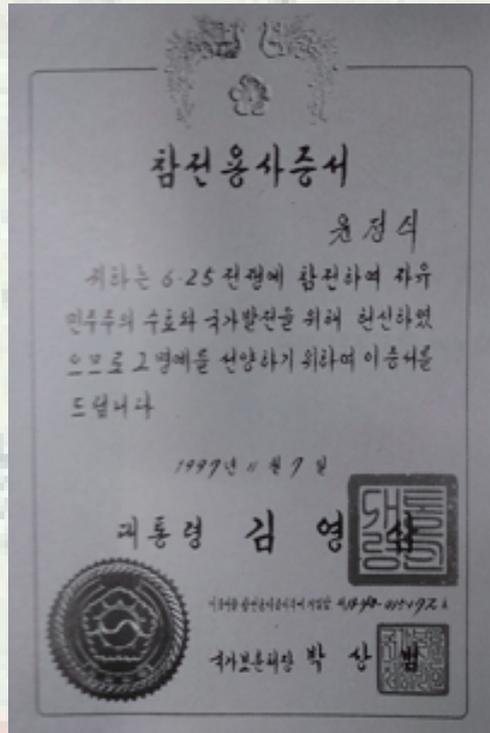
중공군의 개입으로 덕천전투에서 아군은 크게 패하면서 수많은 사상자와 포로가 발생했고, 윤정식 선생 또한 당장은 적의 포로가 되는 것은 면하였지만,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가며 덕천지역 산속의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 구출만을 기다렸다.

1951년 1월 은신처가 발각돼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고, 장교가 아닌 사병으로 위장하여 목숨만은 건졌으나 덕천포로수용소에 수감 되는 신세가 되었다. 군에서는 실종으로 처리하여 양산의 부친 윤인수 선생에게 실종통지서가 배달되었다.



윤정식선생의 참전용사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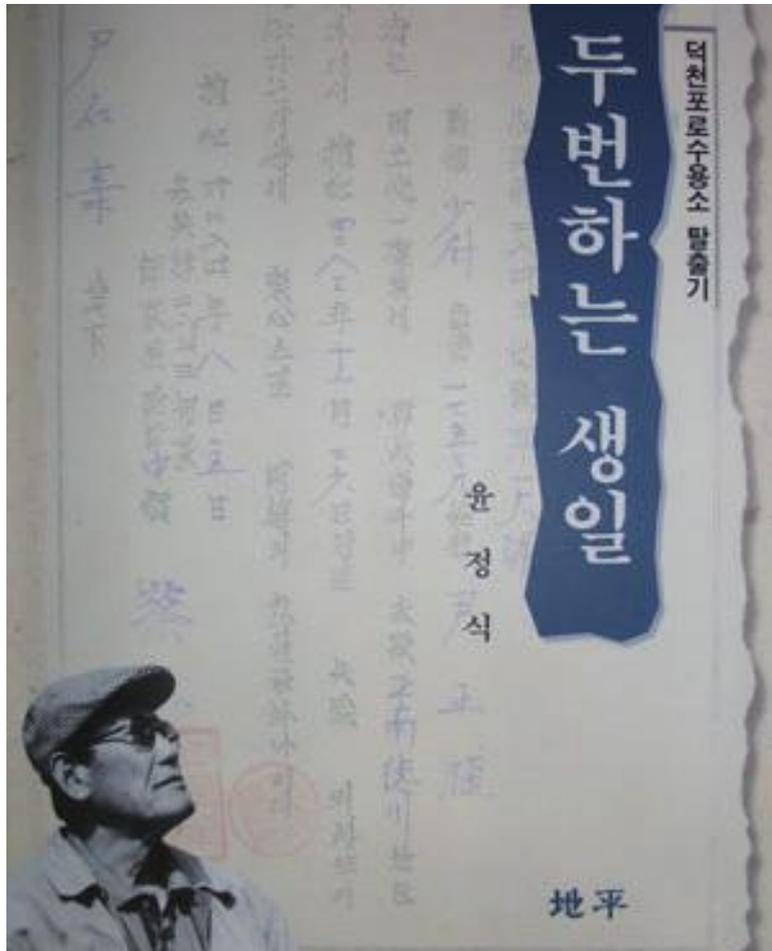
윤정식선생의 실종통지서



‘두 번 하는 생일’을 책으로 쓰다

이러한 윤정식 선생의 구사일생 탈출 생환기는 ‘두 번 하는 생일’이라는 책으로 엮어졌고, 이 책은 통신장교로 참전했다 포로가 된 이후 탈출했던 체험을 담고 있다. 집필 과정에서 전쟁 당시 중공군의 진군 루트였던 중국 단둥을 5차례 방문하고, 육군본부 전사실을 16번이나 방문하는 등 철저한 자료 수집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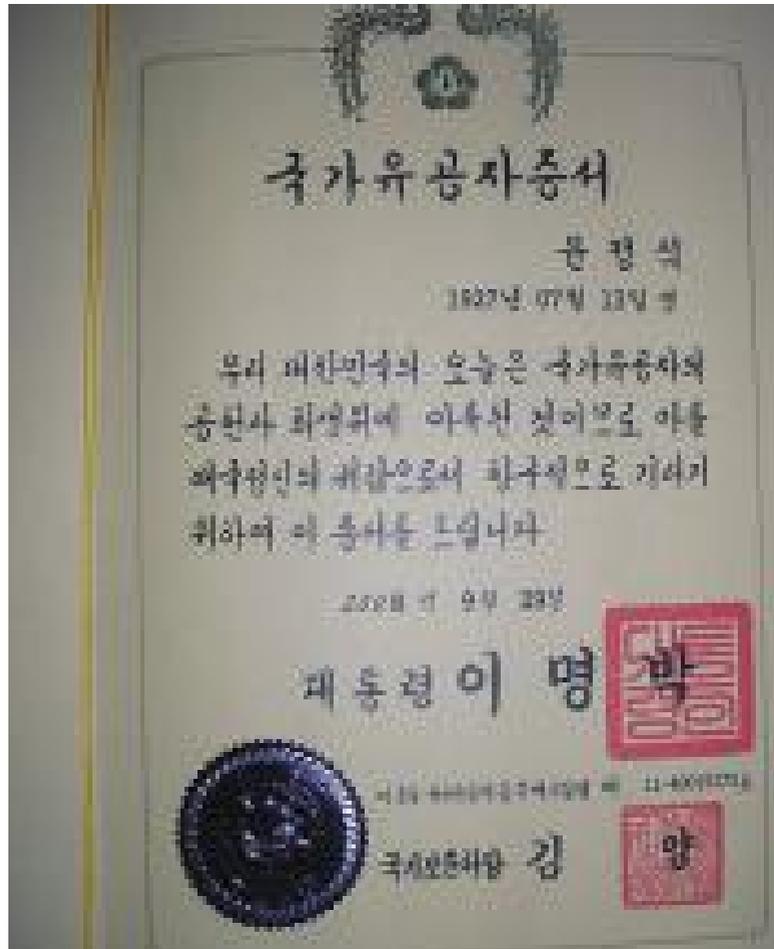
자서전 두번하는 생일



덕천포로수용소를 극적 탈출하다

윤정식 선생은 북한군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3개월여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장교라는 신분이 밝혀지게 되면서 총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천운으로 1951년 4월 덕천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여차저차 포로수용소는 벗어났지만 숨어 지내면서 도둑질로 식량을 훔쳐 배를 채워야 했고, 적진 속에서 무려 6개월에 걸쳐 남쪽으로 피신해 내려오던 중, 1951년 9월 16일 미군과 조우하게 되면서 극적으로 생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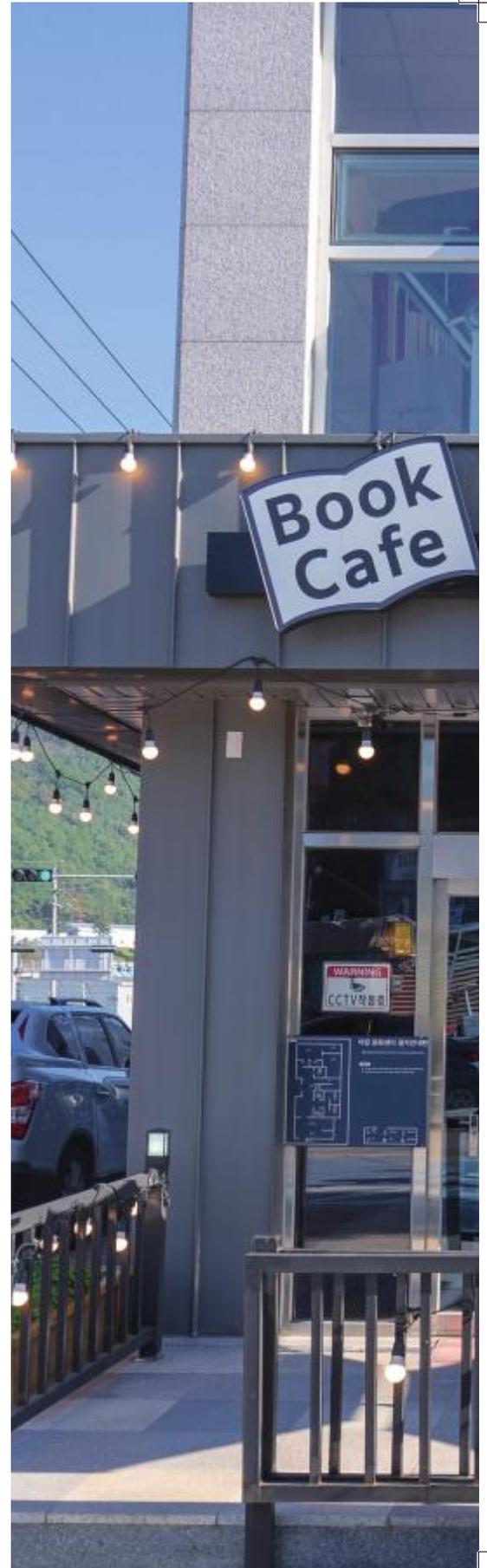
윤정식선생의 국가유공자증서



4

함께한 일상을 기록으로

| | |
|------------|-----|
| 수서권역 사업 | 86 |
| 상삼마을 이장 | 92 |
| 수서권역 협동조합 | 96 |
| 이팝문화센터의 하루 | 100 |
| 원모어카페 | 106 |
| 우리의 삶 나누기 | 110 |
| 전하고 싶은 말 | 124 |





상삼마을의 밝은 내일을 그린다 수서권역 사업

수서권역은 상북면 상삼리, 좌삼리 일원을 말하며, 수서권역은 이팝나무, 천성산, 황산선정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좌삼마을과 상삼마을은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해 가까운 이웃 관계이지만 도시가 공업화되며 공동체가 약화됨을 느껴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였다.

상삼마을회관 리모델링 이전





상삼마을과 좌삼마을 위치

수서권역의 인구수는 675명(남자 346명, 여자 329명)으로 총 309가구(농가 126호, 비농가 183호)가 살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8년에 시작해 2022년까지 5년간 총 40억 원(국비 12억, 지방비 28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하여 상삼리에는 이팝문화센터가 조성되고 좌삼리에는 이팝체육공간, 다목적공간이 생긴 덕분에 주민들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팝문화센터, 수서권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다



수서권역 이팝문화센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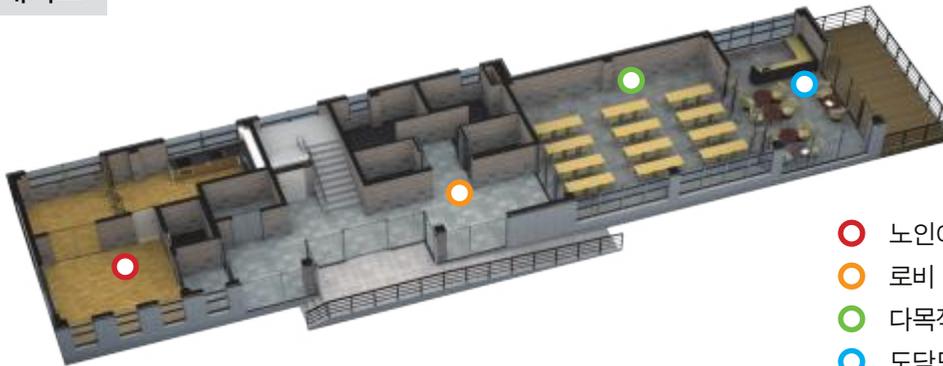
| | |
|------|-------------------------|
| 위치 |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426-2 일원 |
| 조성규모 | 584.12㎡ |
| 용도 | 동아리활동, 북카페, 노인회관, 건강관리실 |

이팝문화센터 배치도

1층에는 노인여가활용실, 로비, 다목적홀, 도담도담 카페가 있고 2층에는 사무실, 동아리실, 샤워실, 건강관리실이 있다. 이팝문화센터, 노인정, 건강관리실(헬스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개방되어있으며, 도담도담 카페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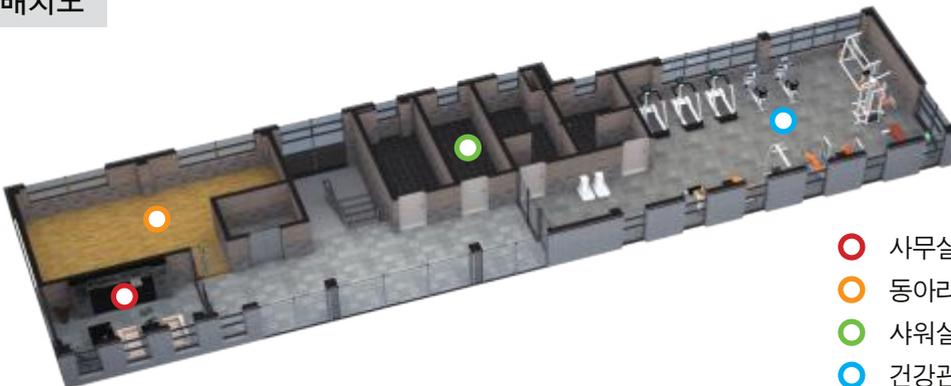
수서권역 이팝문화센터 층별 배치도

1층 배치도



- 노인여가 활용실
- 로비
- 다목적홀
- 도담도담 카페

2층 배치도



- 사무실
- 동아리실
- 샤워실
- 건강관리실

이팝문화센터 건강관리실

건강관리실은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용을 위해서는 등록비용이 들며 수익금은 이팝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등록 관련 문의는 이팝문화센터로 하면 된다.

건강관리실(헬스장)



이팝문화센터 동아리실

동아리실에서는 목공예, 가요장구, 라인댄스, 커피 등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었다. 현재는 요가와 멀티로빅을 운영하고 있으며 목공예와 가요장구 동아리는 추후 계획 중이다. 동아리 활동은 참여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며 운영해나간다.

금년도에 운영된 에어로빅(멀티로빅), 요가 동아리는 7월에서 9월까지 총 24회차로 운영되었다. 요가 동아리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8시까지 2시간 동안 12회차로 진행되고, 멀티로빅 동아리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8시까지 2시간 동안 12회차로 진행되었다. 매 회차당 20명 내외의 주민들이 참여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연극, 댄스, 가요장구, 요리,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노력해나갈 전망이다.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갑시다!

상삼마을 어장 / 김사환(70)



언제부터 이장직을 맡으셨나요?

상삼리에서 나고 자라 군대 제대 후 타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40대에 고향이 그리워 다시 상삼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장직 임기는 한 번 하면 2년 단위이고 2022년부터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아무래도 급한 게 젊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현재는 우리 마을이 동네가 크고 60대 청년들이 있지만, 앞으로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마을 부녀회나 청년회 등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으니 마을의 변화는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며 꾸려나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년시절 상삼마을은 어땠나요?

어릴 때 돌이켜보면 상삼마을은 시골 그 자체였습니다. 전형적인 60~70년대 농촌 마을에서의 유년기는 먹고 살기에 식구가 많아서 '잘 먹는 것'에 집중했었어요. 배고픈 시절이라 배 채우기에만 급급했지만 그래도 그 때 참 좋았네요. 동네의 정서, 사람에 대한 정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그 시절이 그리워져요. 그래도 우리 마을은 원주민들이 많아서 옛날이야기도 하며 재미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강산이 7번이나 바뀔 정도로 시간이 흘렀네요. 다른 동네도 그렇지만 상삼은 접근성이 좋다 보니 도시화가 되면서 어릴 때와는 몰라보게 바뀌었어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상삼마을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나요?

권역사업을 통해 5분 거리에 ‘이팝문화센터’가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참 복이라 생각해요. 시골에 살면서 일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던 시절은 저희 어머님 세대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디지털시대에는 열정을 가지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다양한 마을들이 이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마을을 위한 마음으로 부지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센터가 지어지고 마을회관이 현대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뜻이 모여 동아리실, 헬스장 등이 생겨나고 의지와

시간이 있으면 운동과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는 것은 두고두고 마을의 자랑거리라 생각합니다. 이장만 믿고 다들 협조해주시고 따라와 준 주민들에게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마을 관련 기사를 보고 이사를 오신 집이 열 가구 정도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같은 마을주민으로서 느끼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후대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상삼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싶어요.

바람이 있다면

상삼마을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막연하게 좋은 동네보다는 생동감 있고 살기 좋은 동네, 만족스러운 삶을 지낼 수 있는 동네라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가 사는 마을을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자부심을 강하게 가지고 이장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팝문화센터

반촌마을(반은 촌이고 반은 도시화)인 우리 마을의 지속성 있는 소득화를 위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변화를 이룩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해나가며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 함께 노력해나가고 있어요.

동네 일을 하다보면 모든 일에 박수를 받을 수는 없지만,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세월이 흘러도 내가 이장할 때는 이런 건 잘했다고 박수를 쳐 주실 분들입니다.



상삼마을 이장 95

오순도순 수서권역 협동조합

수서권역 협동조합 운영위원장 / 김상환(61)

수서권역 협동조합 사무장 / 장상준(54)



수서권역 협동조합 운영위원장 및 사무장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상삼마을, 좌삼마을을 묶어 수서권역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간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은 ‘수서권역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33명의
회원들이 있다. 그 중 상삼마을의 주민인 김상환 위원장, 장상준
사무장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나요?

김상환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2015년도에 상삼마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던 중에 전임 마을 이장님이 회의 중 의논할 것이 있다고 불러서 갔습니다. 들어보니 수서권역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추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업 시작할 때 발표할 사람이 없다고 발표자료 만들어줄테니 나가서 발표만 하면 된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사소한 서류 작업부터 해야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 발 담그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지만 어릴적 마을 어른들이 우리집 농사 일을 많이 도와주셔서 보답하자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지나간 일이니 마을 일이 즐겁고 좋지만 그땐 사실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웃음)

사업 발표하고 나서 심사위원 한 분이 공무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잘했다는 뜻이겠지요.

장상준

처음 사업을 할 때 김상환 위원장님이 저에게 제안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적으니 컴퓨터를 잘 다룰 것이라 생각하고 메일 몇개만 보내주면 된다고 하길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고보니 모든 서류 업무와 관리를 다 해야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처럼 낯여서 들어오게 된거죠. (농담)

제 본업도 따로 있어 업무가 많아 고충이 없지는 않지만 이왕 하는거 열심히 하자는 생각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자, 잘되고자 하는 일이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결국 사업 선정이 되어
힘든 과정이긴 했지만
매우 뿌듯합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마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업무가 있나요?

김상환

사무장과 같이 의논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리 및 운영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상삼마을은 관광지가 아니라서 외부인들을 끌어오기보다 현재 있는 시골의 인원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력으로 소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상준

사업으로 조성된 이팝나무센터에는 카페, 헬스장, 경로당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곳을 관리하고 매출도 신경써서 조합을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매일 8시, 문닫을 시간이 되면 저는 사무실에 와서 정리하고 업무를 봅니다. 이 센터가 없었을 때는 집에만 있고 지루하게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모여있을 공간이 있으니 어른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또 요가, 멀티로빅 등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공방, 생활아트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환

“올해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끝나지만
당분간 이 일을 계속 하면서
마을 발전에 힘쓰고 싶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김상환

이 일을 하면서 좋은 점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마을에서 봉사하고 일 할 기회가 있다는게 참 감사했습니다. 또 저는 사람 만나는걸 좋아해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도 잘 되어 있지만 상삼마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등을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처럼 타지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회, 청년회보다는 통틀어서 향우회를 하나 결성하면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모두 돌아왔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장상준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상삼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농촌마을인데, 다들 연세가 드시니 기존 땅들이 공장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조그만 동네들이 공장에 묻혀 사라질까 걱정됩니다.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겠지만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전원생활을 하는 등 좀더 활기찬 분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또 어릴 때 친했던 친구들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장상준



이팝문화센터의 하루

도담도담 북카페



도담도담 북카페 전경

양산시 상북면 소재지에서 산골쪽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1028호 도로 옆, 상삼마을 끝자락에 자리잡은 ‘북카페 도담도담’은 오래되어 흉물스럽던 건물을 철거하고 깨끗하게 새로 단장한 이팝문화센터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손님들이나 마을 주민들로부터 가격 대비 커피 맛이 좋은 곳으로 소문나고 있다.

북카페 도담도담은 2021년 4월 20일 영업을 시작했다. ‘도담도담’이라는 말은 ‘어린 아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라는 모양’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로, 우리 마을 카페가 나날이 성장하길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이름이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되었다.

카페 운영은 지역 주민들 중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15명으로 시작했으며, 현재는 12명이 1일 2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모두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지만, 라떼아트 등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하여 추가로 교육을 받기도 한다.

커피 동아리에 참여한 주민들





카페 운영을 위해 봉사하는 주민들

카페를 시작하기 전 운영방안에 대하여 카페 봉사자들과 운영위원들이 함께 의논하기를, ‘주변에 지속적으로 카페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음료의 품질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지었으며, 1년 반 정도 운영한 결과 조금씩 단골 손님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수제 생강청



수제 레몬청과 오미자청



커피 재료의 고급화뿐만 아니라 수제 음료인 생강차, 오미자차, 레몬차는 봉사자분들께서 직접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여 청을 만들고 충분히 숙성시킨 후 겨울에는 따뜻한 차로,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로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카페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모두가 자원봉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덕분이라 감히 자부한다.

이렇게 카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의 일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주시고 열정적으로 봉사해주시는 분들에 대하여 최대한으로 보상해드리고, 도담도담 카페가 마을 사랑방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카페 운영을 위해 봉사하는 주민들





상삼 경로당 전경

상삼 경로당

이팝문화센터 1층 안쪽에는 경로당이 있다.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오래된 건물의 경로당이었는데 새로 짓고 나니 시설도 훨씬 좋아지고 놀러 나오기도 더 좋아졌다. 경로당에는 안마의자, 혈압측정기, 컴퓨터 등 최첨단 시설들이 있고 주방도 기본적으로 잘 되어있다.

경로당에서 밥을 다같이 먹는 날은 오전 10시 쯤, 안먹는 날에는 오후에 와서 놀다가 4시쯤 돌아간다. 여름에는 더 늦게까지 있기도 한다. 혼자있다가 여럿이 모이면 덜 지겹고 외롭지 않다.

미술,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도 가끔씩 하고 있다.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코로나가 없어지면 프로그램을 꾸준히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 경로잔치, 효도관광도 예전엔 많이 갔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한다고 하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진다.

상삼 경로당 내부



상삼 경로당에 모인 주민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원모어카페

최원영(32) / 원모어카페 사장
최광현(64) / 이영자(63) / 최푸름(30)

원모어카페 내부



조용한 마을에 카페가 생기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양산에 위치한 ‘상삼’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최원영입니다. 4년 정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늘 감사하고 행복한 생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4년 간의 회사를 마감하고 카페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잦은 해외출장으로 인한 몸과 마음의 피로도 많이 쌓였고, 1년에 6개월 이상을 고향 마을 상삼을 떠나 외국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약 1년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이제 해외출장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은 사라졌고, 소박한 고향 생활과 카페 일에 대해 만족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상삼마을의 분위기도 좋고, 친근하고 순박한 사람들의 방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모어’의 의미

‘원모어’는 아동후원단체 이름입니다. 현재에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대표님의 가맹 조건은 ‘원모어 커피 하우스’라는 이름과 매출의 1%의 기부였습니다. 현재에는 단체의 활동이 멈춰서 기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One more life, We act love more, live better. 또 하나의 삶,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행동한다.



원모어 카페 사장_최원영

가족과 함께하는 카페

아빠, 엄마, 여동생, 저 4명이서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카페와 커피를 좋아하고, 디저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원모어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카페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 가지 음료, 디저트를 같이 연구하고, 상삼 마을 동네에 지인분들이나 단골손님이 오시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단골 손님

우리 가게 '원모어 커피 하우스'는 단골 손님과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멋진 카페도 아니며, 거리 또한 직접 차를 운전하여 오시기 때문에 방문 하시는 한분, 한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보고, 손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모습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원모어로 오세요!

가게 오픈 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유명한 카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규모 카페 뿐 만 아니라 소규모 카페들까지 오픈 이래 10 개 ~ 20개가 생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카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를 마시며, 잠시의 여유를 즐기기에 다른 카페에 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삼마을의 미래는

상삼마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생기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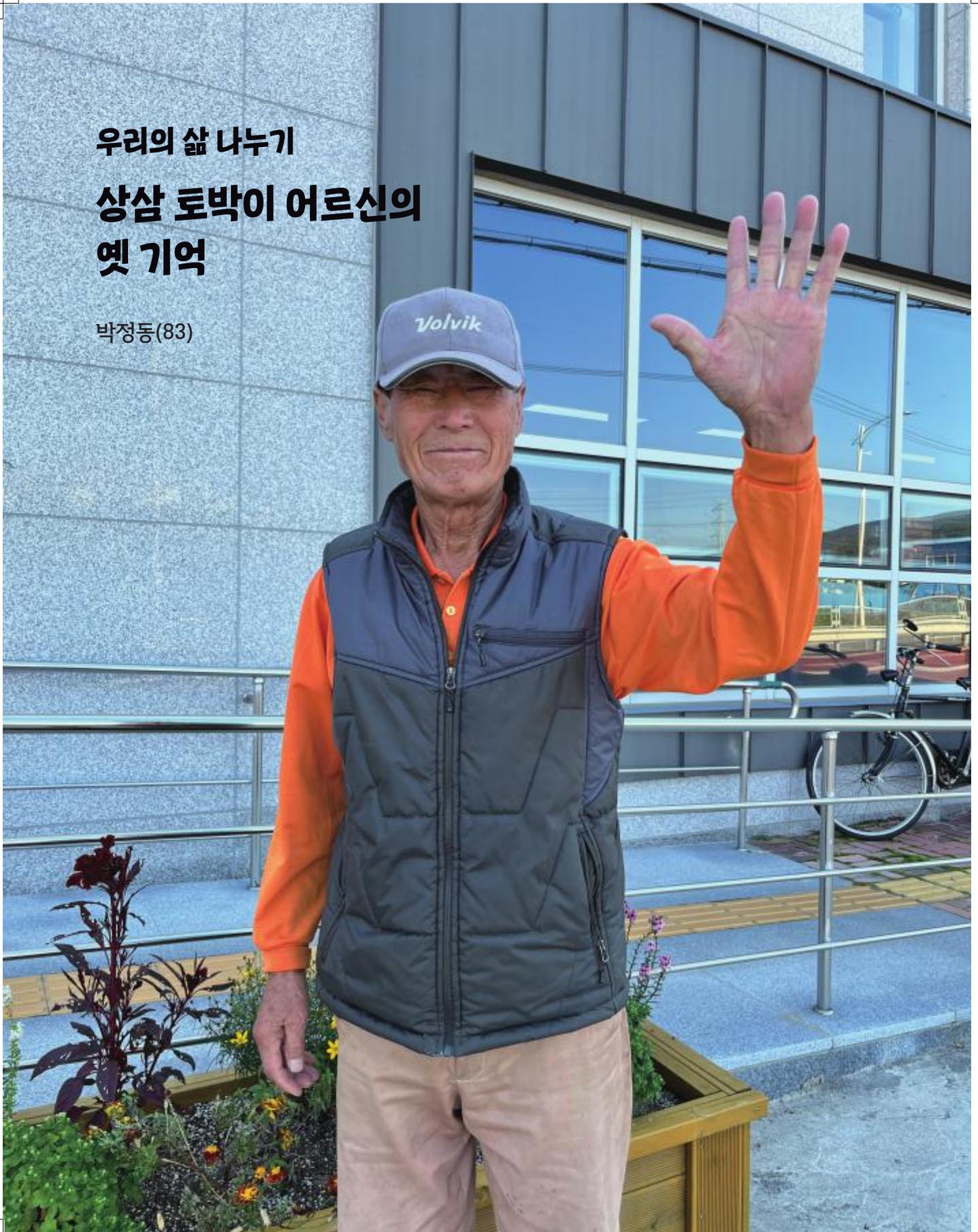
미래에도 더더욱 미래에도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모어카페 전경



우리의 삶 나누기
상삼 토박이 어르신의
옛 기억

박정동(83)



“우리 상삼마을은
지금 이대로도 좋습니다.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저는 80평생 이곳에 평생 사는 토박이입니다. 가까이 있는 상북초등학교를 졸업했고 68년도에 결혼해서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난 날을 되짚어보자니 어릴 적 놀았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젊을 때 당산나무 앞에서 술 취해 누워있고, 쉬어가고는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여기가 전부 밭이었을 때 밭가벗고 친구 세 명이 배를 따먹고 도망갔는데 한 명은 달리기가 늦어 붙잡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먹을게 없고 못살았으니 어른들이 서리는 그냥 눈 감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붙잡혀도 도둑 취급 하지 않고, 혼만 내고 끝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네 명에서 서리를 가는데 두 명은 원두막 기둥을 흔들며 과수원을 지키는 주인을 못 내려오게 하고, 두 명은 감을 따서 도망가는 작전도 했습니다.

이렇게 밭이 많았던 건 마을의 윤인수 어른 덕분입니다. 인삼재배를 도입해 농업의 선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마을에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샘이 세군데 있었는데 물이 따뜻해서 목욕도 가능했습니다. 미꾸라지도 잡아 추어탕도 끓여먹고요. 그 샘이 우리 마을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도로를 만든다고 없어져 버린 것이 아쉽습니다. 또 겨울에는 초가집 위에서 참새를 잡아 놀기도 하는 등 추억이 많습니다.

요즘은 아직도 배추, 고추 등을 집 텃밭에서 작게 농사를 합니다. 또 따로 1,000평 논에 농사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경로당에 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려 놀입니다. 이웃끼리 잘 만나고 맛있는 걸 나눠먹고 하니까 더 바랄게 없습니다. 코로나만 없어진다면 100% 만족일 것 같습니다.

다시 떠올려보는 신혼생활

변이순(84)



"남편은 어딜 가면 꼭 나를 데리고 다니고 나를 참 이빠라 했어요. 우리 남편이 좋다고 표현하는 방법은 나를 업어주는 거였죠."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송정리에서 육남매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위로 언니 둘은 17세, 19세 때 결혼했는데 언니들이 친정을 떠나갈 때 보고 싶어서 남겨놓은 옷가지를 붙들고 많이 울었었죠.

내가 24살 때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남편이 군대 생활하고 있을 때 휴가 나와서 중매로 서로 만났어요. 선보고 며칠 뒤 잔치를 하고 새신랑은 군대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1년 뒤에 남편이 군대를 제대하고 2남 1녀를 낳으며 알콩달콩 살았어요. 결혼생활 동안 크게 나쁜 것도 없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남편한테 사랑 많이 받고 살았구나 싶어요.

남편은 키가 190cm 가까이 되고 내가 키가 작아서 결혼식 때 발 받침대를 받쳐서 있었습시다. 옛날에는 그 정도로 키 큰 사람이 많지 않은데 키도 크고 잘생겼습시다. 신혼 때 이불에 물을 뿌려놓고 오줌을 싼다고 놀리기도 했습시다. 물총을 만들어서 물싸움을 했던 추억도 있습시다. 그리고 여자들끼리도 많이 어울려 다녔는데 옛날에 먹을게 없으니

보리를 뜯어와서 삶아서 반찬으로 나물을 내어놓았습시다.

과거에 비하면 요즘은 못산다고 해도 옛날에 그렇게 부자라고 했던 만석꾼보다도 잘 먹고 잘 삽습시다. 세상이 참 좋아졌습시다. 시집와서는 다들 곱더만, 이제 우리 할매가 다 됐네요. 저는 크게 바라는 거 없이 상삼주민들, 앞으로 편안하고 몸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랄 뿐입습시다.

전통 혼례 사진



쉬는 날이 없었던
그때 그 시절

김정희(73)



“저는 26살 때 5살 차이 나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이상형이 가정에 충실하고 외모는 못생기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그 때 한 달 만에 결혼한 게 후회되네요. (농담)”

막내를 낳고 상삼마을에 왔는데 벌써 45년이나 지났습니다. 남편 공장에 불이 나 집을 팔고 빚 갚고, 어머니 이종사촌이 상삼마을에 있어 논을 사고 농사하려고 상삼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와서 초반에는 지렁이똥이 있었습니다. 지렁이를 키우려면 소똥이 있어야하는데, 주변 가축에서 얻어 키웠습니다. 처음 1~2년만 바짝 하고 그 뒤로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하고 축사도 했습니다. 아직도 축사를 하는 큰 아들은 바로 앞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고는 농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조그만 텃밭 200평에 마늘, 고추, 고구마, 콩, 배추, 무 등으로 먹을 만큼만 소소하게 가꾸고 있습니다.

저의 60살 생일날에는 막내 시동생이 직장도 없이 애먹이다가 형님, 형수 앉아보라고 하더니 큰절을 하며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제구실 잘 못하며 도움만 받고 살았던게

미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장미 100송이를 선물 받았는데 처음으로 꽃을 받아봤고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시동생한테 그냥 별말없이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복이 터졌습니다. 부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지만 옛날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기 싫습니다. 너무 고생했거든요. 요즘은 일하기 싫으면 안하고 놀러가고 좋아요.

결혼식 사진



뭐든지 다 잘되는 상삼마을

정화순(86)



“저는 배내골이 고향이에요.
1957년도에 결혼해서 상삼마을에 정착했어요.”

전통 혼례 사진

4,000평 논에 보리, 벼부터 시작해 단감, 배, 밤 등 과수원 농사도 지어보고 돼지, 한우 등 목축업도 해봤어요. 특히 과수농사를 전문으로 마을을 개척했었습니다.

1959년 사라후 태풍으로 자연재해를 입고 마을 주민 모두 '죽'으로 연명하면서 보릿고개 때는 쉼, 나물, 보리죽으로 연명했던 시절도 있었죠. 앞으로 상삼마을은 사업이나 농사나 뭐든지 다 잘되고 가정마다 행복하게 잘 살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일입니다.



생일상과 함께, 정화순 어르신 가족



상삼마을에 살아보니

이태분(73)



“경북 월성군 내남면 망성 2리에서
삼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오빠 둘에 딸 하나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여름에는 오빠들따라 냇가에 멍감으러 같이 가고, 겨울에는 사랑방에 앉아 오빠들이랑 짚으로 새끼꼬기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옛날에는 실제 생활하면서 새끼 쓰임새가 많았어요. 초가지붕, 가방, 바구니 만들기 등 겨울에는 사랑방에 모여서 늘 일손이 쉬지 않았었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첫날밤에 창호지를 뚫어 몰래 훑쳐보는 장면이 나오지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첫날밤, 창호지가 다 뜯기고 문도 뜯어가서 별이 다 보였습니다. 우리는 선을 봤는데 첫눈에 반했다고 3일 만에 약혼하자고 편지가 왔습니다. 살다보니 술이 원수라고 남편이 속을 좀 썩였지만 본성은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좋았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쉬는 날 없이 살아가기 바빴던 옛날이지만 지금은 살다보니 여기가 참 좋고 태어난 곳보다 상삼에 더 오래 살았으니 더 편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웃집에 가면 ‘밥 좀 주소.’ 했는데 요즘은 이웃집에 놀러가면 ‘커피 한 잔 주소.’ 합니다. 그만큼 살기가 여유롭고 좋아졌다는 말이겠지요. 이젠 상환이가 든든하고 기둥 같습니다.

추억 속 상삼마을을 되새기다

박춘자(78)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에서 육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위로 언니 둘이 있었는데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어린 내가 어떻게 될까 금지옥엽 귀하게 자랐어요.”





전통 혼례 사진

친정아버지께서는 편물사업을 하셔서 동네에서 꽤 부자로 살았습니다. 24세 때 공무원인 남편을 만나 1969년 2월에 결혼하면서 상삼에 오게 되었어요. 중매를 통해 결혼했지만 신랑도 괜찮고 해서 만족하며 삽니다. 3남매를 낳고 시어른들 잘 모시면서 마음 다칠 일 없이 살아왔네요. 추억을 떠올리기 힘들만큼 살기 바빠 기억에 남는 일이 별로 없지만 상삼마을에 오던 그때는 생각이 납니다. 보통 결혼식은 여자집으로 와서 하는데 결혼하던 2월 4일 그 날, 차도 못다닐 정도로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와야하는 차가 못오고 결국 신랑과 가족들은 버스를 타고 왔고, 사진사도 겨우 도착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종돈을 수정시키는 사업을 하셨는데 이웃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른 새벽

종돈에게 귀한 계란 하나 풀어주고는 함께 먼 길을 떠났어요. 신기한 것은 돼지가 목줄이 없어도 시어른 말씀하는 대로 가더라고요. 돼지가 시어른 말을 참 잘 들었어요. 양산시내를 주름잡을 정도로 저 멀리 물금까지 우리 수돼지가 큰일을 다했어요. 아마도 양산시내 전체가 우리 수돼지 새끼들일거예요.

옛날에는 동네잔치나 행사를 하면 꼭 돼지를 잡아서 동네사람들끼리 다 갈라먹었어요. 닭 잡는 것보다 돼지 잡는 게 더 수월하죠. 시어른 장례식 때는 상여꾼, 마을주민들이 많이 와주셔서 문상객 접대를 위해 돼지 7마리를 잡았었죠. 그때 생각하면 마을 주민들한테 참 감사합니다.

마늘 농사를 도입한 남편

김순화(84)

“23살이 되던 해 1961년,
시집오면서 상삼에 왔습니다.
그 때 남편은 29살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시래기 다듬는 사진

어느 날은 남편이 마늘을 가져와 10,000평을 심었는데 그게 상삼마을에 최초로 도입된 마늘입니다. 그때는 지금 유명한 당근, 콩 농사를 하지 않고 흔히들 하는 벼, 보리농사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마늘을 들여온 후 상삼의 농작물 종류가 많아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돈을 버는 농사보다는 집에서 먹을 것만 조금씩 하며 지냅니다.

전하고 싶은 말

마을 주민



김시환(70)

“훗날 주민들이 이장을 기억할 때 부지런하고 책임감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동네 있는 동안은 첫째도 둘째도 협동하면서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십시다.' 라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말에 책임을 다하고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환(61)

“6년 째 추진위원장, 운영위원장 하고 있지만 이번을 계기로 문화생활도 많이 즐기고 카페 공간도 누리고 다들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장상준(54)

“여기서 나고 자랐다고 해서 어른들이 어릴 때 불러주셨던 별명이 '상삼둥이'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동(83)

“지금 이 정도만 되도 더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이웃끼리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 나눠 먹고,
너무 좋습니다.”



정화순(86)

“사업이고 농사고 다 잘되고
가정마다 행복하게 잘 사는게 제일
좋고 그게 소원입니다.”



이태분(73)

“이웃간에 우애있고 잘 지내는게
제일이지요. 든든한 상환이가
기둥입니다.”



김정희(73)

“다 잘 살아서 보기 좋습니다.
특별히 바라는 건 없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화(84)

“이웃들이 싸우지 않고 말도
예쁘게 하면서 재미있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변외순(84)

“항상 편안하고 몸 건강히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박춘자(78)

“새롭게 바뀐 지금의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도 꼭 재미있는
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김대유

“농촌의 이야기를 모으고 기록하는 기록화사업은 고령화·인구유출에 따른 농촌 자원의 소실을 막고 농촌마을 문화의 보전과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마을에 다양한 형태로 기록화를 추진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가 보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성화 팀장 한창민

“인터넷이나 문헌에는 없는 생생하고 작은 이야기들로 마을마다 품고 있는 농촌다움과 문화를 잇는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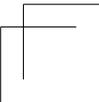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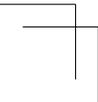
농촌활성화팀 김희애

“아카이빙은 마을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을마다의 이야기 소재를 기록하여 공동체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성화팀 전하정

“마을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통해 추억 속으로 잊혀져 가는 옛 마을의 흔적들이 생생한 숨결로 되살아나고 이 모든 활동이 양산의 시간을 남기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산시 농촌 활성화를 위한 가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산시
마을이야기 책

: 상삼
다시 돌아오고픈 마을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처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농촌활성화팀)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남2길 33-1, 3F
연 락 처 055-382-9196~7
팩 스 055-382-9198
이 메 일 ys_village@naver.com
홈 페이지 www.ysrrc.or.kr
기획 · 제작 (주)엔브이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